

ETF 전략

코스닥 Level-UP의 시그널

윤재홍

jaehong.yoon@miraeasset.com



CONTENTS

Executive Summary	3
I. 코스닥 Level-UP의 시그널	5
코스닥 30년: 기대와 실망의 역사	5
[시그널1] 체질 및 수급 개선에 중점을 둔 새 정책	6
[시그널2] 국민성장펀드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자금 유입	8
[시그널3] 코스닥 수급 다변화 및 기관 자금 유입	11
[해외 Case Study] 일본, 구조 개혁과 자금 유입 동반	15
II. 코스닥 ETF 투자 전략	17
2026년 하반기 코스닥 주도 산업 찾기	17
코스닥 주도 산업, ETF로 따라잡기	19
핵심 산업 및 관련 ETF	21
관심 ETF	25
[Appendix] 핵심/관심 ETF 외 코스닥 ETF	29

Executive Summary

코스닥 30년: 기대와 실망의 역사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소외가 지속. 올해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16%로 코스피 상승률(+101%)을 -85%p 하회하며 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의 소외를 경험 중. 최근 상대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코스닥 시장의 상대강도 회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그널은 존재

[시그널1] 체질 및 수급 개선에 중점을 둔 새 정책

코스닥 활성화 관련 정책 지속적으로 발표. 주요 내용 중 상장 활성화와 퇴출 강화를 동시에 추진(다산다사)하고, 장기 자금(연기금)의 유입을 유도하는 점은 과거 정책과 구분. 리그를 구분하는 승강제는 최근 일본에서 유효했던 정책. 개정안은 요건/시행 시기에서 기존 발표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그널2] 국민성장펀드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자금 유입

2025년 9월 발표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정책 자금. 직/간접 지원 포함 코스닥 시장에는 약 10.4조 원(전체 150조 원의 약 6.9%) 유입 가능.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선호 회복도 긍정적. 시장도 투자 집행에 따라 반응

[시그널3] 코스닥 수급 다변화 및 기관 자금 유입

전통적으로 개인 중심의 시장이었으나, 시장 구성에서 외국인/기관 참여가 증가하면서 주체 다각화 진행 중. 자금 환경 역시도 우호적으로 변화. 전분기 대비 예탁금 증가율이 증시 상승률을 초과하고, 퇴직연금 내 원금 보장형 잔고가 감소. 과거 예탁금 증가율이 증시 상승률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코스닥 성과가 코스피 성과를 상회할 확률이 높았음

자금 운용 평가 기준 변경으로 대규모 장기 기관 자금 유입 기대. 현재 안은 코스피(0.95), 코스닥 150(0.05) 반영으로, 주요 기금의 국내 주식 운용 규모 감안 시 5%만 추가로 유입 되더라도 약 20조 원 이상의 수급 효과 가능

[해외 Case Study] 일본, 구조 개혁과 자금 유입 동반

일본 거래소(JPX)는 2022년 4월,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복잡한 상장 시장을 3개로 재편. 시장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상장폐지 강화하면서 상장 기업의 체질 개선 도모. 2024년 일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종목 수는 94종목으로 신규 상장(81종목)을 처음으로 앞섰으며, TOPIX 지수의 12개월 선행 PBR은 2023년 이전 13년간 평균 1.2배에서 2026년 1.7배 수준까지 상향. NISA 및 신 NISA를 통해 가계 자금 이전이 빠르게 이뤄진 점도 유효

2026년 하반기 코스닥 주도 산업 찾기

2026년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계의 주도 지속과 건강관리 산업의 반전을 전망. 상대적으로 컨센서스가 풍부한 코스피의 산업별 실적 전망과 함께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배분/집행을 고려

[참조] 코스닥 주도 전망 산업의 매출액 전망 및 정책 연관성(*매출액 전망: 코스피, 2025→2026F)

산업	시가총액 (조원)	*매출액 전망(%)	국민성장펀드 연관성	간접 수혜	자금 집행 사례 여부
건강관리	169.2	20.1	+(바이오/백신)		비티젠, SK바이오사이언스
반도체	140.9	136.3	++(반도체, AI)		리벨리온, 평택 반도체 기지, 퓨리오사AI
기계	56.1	20.9	++(항공우주/방산, 로봇)	+(인프라 확충)	

주: 시가총액 기준일 2026.5.29, 매출액 전망은 컨센서스가 2개사 이상 존재하는 기업 대상 집계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주도 산업, ETF로 따라잡기

코스닥 지수를 직접적으로 추종하거나, 편입 종목의 코스닥 비중이 70% 이상인 ETF는 36개 종목, 순자산총액은 11조 3,018억 원(레버리지 제외)

- 1) 코스닥 지수 추종 ETF 및 코스닥 종목 비중이 70% 이상이고, 2) 순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ETF를 유니버스로 두고, 3) 반도체와 건강관리, 기계 비중의 합산이 높은 ETF를 핵심 ETF로 선정. 이와 함께 코스닥 섹터/산업별로 ETF를 선정해 관심 ETF로 선정

[참조] 코스닥 시장 핵심, 관심 ETF

구분	티커	ETF 명	순자산총액 (억원)	합산 비중 (%)	반도체 (%)	건강관리 (%)	기계 (%)
핵심	A0148J0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7,581	74.13	0	1.79	72.34
	A0168K0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1,613	95.61	0	95.61	0
관심	A232080	TIGER 코스닥150	17,072	65.19	24.32	34.2	6.67
	A471760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1,838	70.75	70.75	0	0
	A228810	TIGER 미디어컨텐츠	923	0	0	0	0
	A261070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778	99.58	0	99.58	0
	A261060	TIGER 코스닥150IT	405	71.95	63.16	0.31	8.48
	A461580	TIGER 코스닥글로벌	137	58.75	32.93	25.47	0.35
	A307510	TIGER 의료기기	56	98.21	0	98.21	0

주: 2026.5.28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코스닥 Level-UP의 시그널

코스닥 30년: 기대와 실망의 역사

2001년 이후 최고가에도 지속되는 소외

코스닥 지수는 최근 시장 강세와 함께 1996년 개설 당시 지수(보정 전 출범 100pt, 현행 환산 1,000pt)를 30년 만에 회복했다. 2026년 4월 27일에는 장중 1,229pt까지 상승하며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소외가 지속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초대형주 위주의 이익 개선 및 시장 내 쏠림 현상 강화가 주된 원인이다.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시각은 1) 지수보다 시가총액만 증가하는 기형적 자본 조달 구조의 고착화, 2) 취약한 수급 여건 하에서 소수 주도주에 의한 급등, 급락 반복 등에 기인한다. <그림 1>은 코스닥 지수 및 시가총액 추이로 최근 20년 간 코스닥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2%에 불과한 반면 시가총액은 연평균 +11% 증가했다. 반복적인 물적분할과 유상증자와 주주환원 부재와 맞물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

장기 자금의 부재 및 취약한 수급 기반을 보유한 것도 시장 신뢰 훼손의 원인이다. 기존 개인 비중이 절대적인 시장 구조에서 특정 테마/종목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장기/대규모 자금의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장기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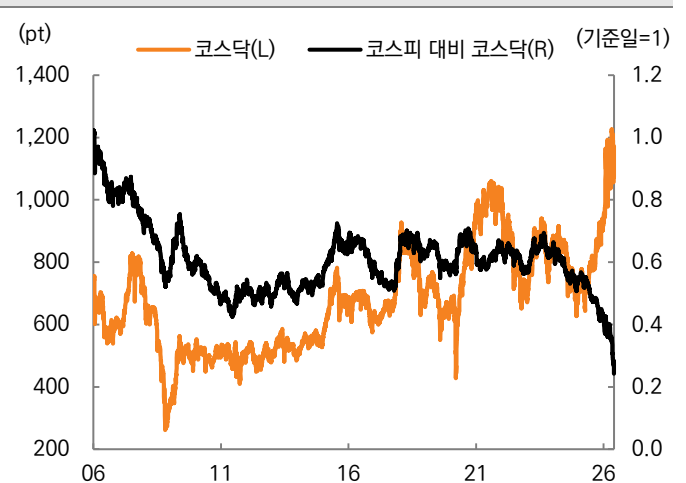
코스닥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이익 상황이 맞물리며 코스피로의 극심한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2006년 이후 코스닥 및 코스피 대비 상대 주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5/29)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16%로 코스피 상승률(+101%)을 -85%p 하회하며 시장 개설(1996년) 이후 역대 최고의 소외를 경험 중이다.

그림 1. 코스닥 시가총액 증가율은 지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 성과 추이



주: 기준일 2006.1.2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시그널1] 체질 및 수급 개선에 중점을 둔 새 정책

코스닥 활성화 정책 개요

이번 정부 들어 증시 관련 정책이 월 평균 1건 이상 발표됐다. 코스닥 활성화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표 1). 주요 내용 중 상장 활성화와 퇴출 강화를 동시에 추진(산다사)하고, 장기 자금(연기금)의 유입을 유도하는 점은 과거 정책과 구분되는 차이이다.

퇴출 강화와 함께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와 1개 관리군으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는 승강제는 최근 일본에서 유효했던 정책이다. 특히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개정안은 요건/시행 시기에 서 기존 발표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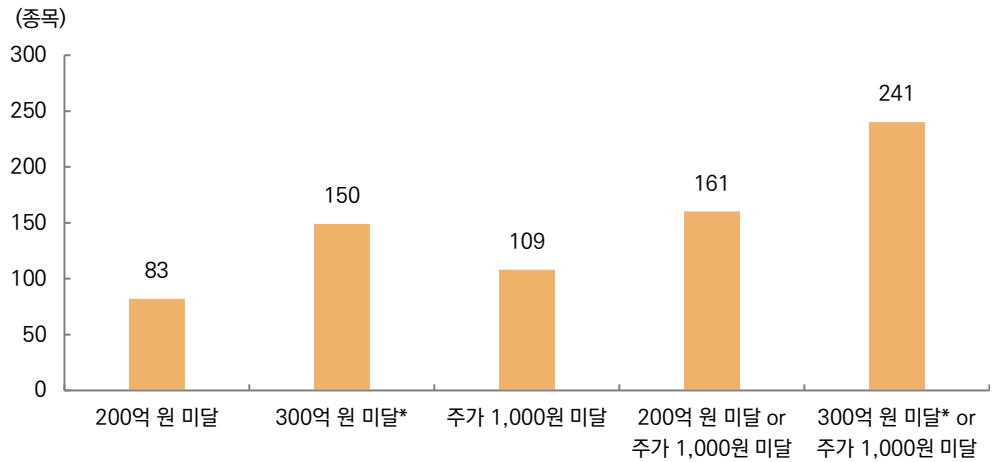
표 1. 주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정리(밑줄: 개정 변동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일
상장폐지 기준 강화	- 상장폐지 심사 대상(2025.7.9 개정안) 1) 시가총액 기준: 기존 40억 원→26년 1월 150억 원 →27년 1월 200억 원→28년 1월 300억 원 2) 매출액 기준: 기존 30억 원→27년 1월 50억 원 →28년 1월 75억 원→29년 1월 100억 원 3) 자본 기준: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 4) 기타: 감사의견 미달 미해소 상태로 재차 미달	- 상장폐지 심사 대상(2026.2.12 개혁안) 1) 시가총액 기준: 기존 40억 원→26년 1월 150억 원 →26년 7월 200억 원→27년 1월 300억 원 2) 매출액 기준: 좌동(*기술특례상장 기업은 5년간 면제) 3) 자본 기준: 반기말 완전자본잠식 4) 기타: 감사의견 미달 미해소 상태로 재차 미달, 추가 1,000원 미만 동전주,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 5년 이내 주된 사업 변경	26.1.1, 26.7.1, 27.1.1
상장폐지 심사 인력	- 상장폐지 담당 부서: 3개 팀	- 상장폐지 담당 부서: 4개 팀(기획심사팀 신설)	26.2.9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 혁신 기업의 신속한 상장을 위해 맞춤형 심사기준 제공 : 바이오 산업만 맞춤형 심사 기준 운영 중 - 전문 평가기관: 26개 기관	-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추가 도입 : 1) AI, 2) 에너지(ESS, 신재생), 3) 우주 산업에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 마련 - 전문 평가기관: 16개 기관(*전문성/일관성 위해 기관 수 축소)	25.12.31, 26.3.3
공시 부담 완화	- 소액공모 범위: 10억 원 미만 - VC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 시 포함	- 소액공모 범위: 30억 원 미만 - VC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 시 제외	(미정) 1H26 개정 전망
코스닥벤처펀드	-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25% - 소득공제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 1인당 누적 3천만 원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투자금의 10%)	-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30% - 소득공제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 1인당 연간 2천만 원 소득공제 한도: 200만 원(투자금의 10%)	26.1.1
자금 운용 평가	- 대형/중소형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피만 반영 : KOSPI * 1.00	- 대형/중소형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반영 : (KOSPI * 0.95) + (KOSDAQ150 * 0.05)	(미정) 2Q26 적용 전망
BDC 도입	- 비상장 기업 투자자: 기관 또는 고액 투자자로 한정 - 투자 대상: 일반 공모펀드 규정	- 비상장 기업 투자자: 기관, 고액 투자자 + 일반 개인 투자자 - 투자 대상: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기업의 주식 /CB·EB·BW, 벤처조합 등 구주 60% 이상	26.3.17
리서치 보고서	-	- 발행어음, IMA 신규 진입 증권사: 코스닥 리포트 확대 1) 스몰캡 전담 애널리스트 수 2배 확대 2) 보고서 발행 수 1.5배 이상 확대	25/12/19 확대 요청
공시 의무 확대	- 공시 의무: CISO 지정/신고, 매출 3,000억 이상 기업 - 이용자 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	- 공시 의무 대상: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 - 이용자 수: 전년도 전체 평균	(미정) 27년 적용 전망
중복 상장	- 강화된 심사기준 하에 중복 상장 가능 여부 심사	-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시 중복 상장 원칙금지(예외 허용) -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충실의무 부여	(미정) 3Q26 적용 전망
IPO 풋백업션	- 풋백업션 안내 방법에 증권사별 편차 높음	- 단계별, 투자자별 풋백업션, 주의사항 표준화해 안내	(미정) 26/07
추정실적 비교공시	- IPO 시 주관사별 추정-실제 실적의 괴리를 비교공시 X	- IPO 시 주관사별 추정-실제 실적의 괴리를 비교 공시 O	26.3.13
코너스톤투자자	- 사전 수요 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 파악 불가 - 공모주 사전 배정: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배정 불가	- 사전 수요 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 예측 허용 - 공모주 사전 배정: 기관투자자 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 예수하는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 허용	(미정) 26/11 시행 전망
코스닥 승강제	- 코스닥 내 리그 구분 부재	- (미정)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 1개 관리군으로 분리 :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 등 3개로 재편(추정)	(미정) 26/10 시행 전망

자료: 한국거래소(KRX),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언론 종합

상장폐지 심사 제도 개정안은 정책 강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안 대비 심사 대상 시가총액 기준의 적용 시점이 앞당겨졌다.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은 2027년 1월에서 2026년 7월로, 300억원 기준은 2028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단축됐다. 또한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2026.5.29 기준 잠재적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종목 수는 241개 사로 추정된다(그림 3). 상장폐지 담당 부서를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림 3. 요건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코스닥 종목 수



주: 시가총액 300억 원 미달은 200억 원 미달 종목을 제외한 수치, 2026.5.29 종가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KRX),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정부의 기술자문역 60인 풀 구성 비중은 코스닥 핵심 산업의 우선 순위를 반영한다. AI(10명), 우주(10명), 바이오(10명)가 동일한 최우선 순위에 배치됐고, IT, 로봇, 소재(20명), ESS, 신재생(10명)도 포함됐다. 실제로 정책 발표(12/19) 이후 5거래일 동안 AI 관련 반도체가 +6.7%, 로봇 관련 기계가 +5.2% 상승하는 등 코스닥 내 수혜 기대감이 높은 산업은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공모 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 혁신 기업이나 중소, 코스닥 상장 소형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상장형 펀드 제도이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해당 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정 후 90일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투자자 대상도 기존 기관 또는 고액 투자자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해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코스닥벤처펀드 역시 한도가 확대됐다. 소득공제 한도는 투자금의 10%(최대 200만 원)가으로 유지됐으나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은 기존 25%에서 30%로, 소득공제 적용 투자액 한도는 1인당 누적 3천만 원에서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크게 확대됐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업공개(IPO) 시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받는 대신,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상)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이다. 최근 개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 예측이 허용되면서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시그널2] 국민성장펀드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자금 유입

국민성장펀드 개요

2025년 9월 발표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정책 자금이다. 코스닥 시장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첫 번째는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한 자금 유입이다. 전체 자금 중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은 지분성 직접 유입분만 약 8.1조 원(직접투자 약 2조 원, 간접투자 약 6.2조 원)이며, 인프라, 대출의 간접 지원 효과까지 포함하면 5년 누적 약 10.4조 원(전체 150조 원의 약 6.9%)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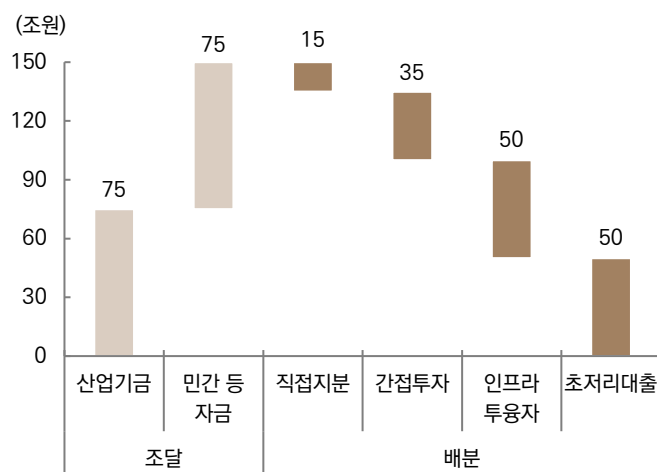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호 회복이다. 실제로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개시(5/22) 당일, 코스피 대비 부진하던 코스닥은 +5% 상승하며 정책 자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미래차, 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연관 기술,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재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그림 4). 지원 방식은 저리 대출(50조 원)과 인프라 구축(50조 원), 첨단기금, 민간자금 조성 펀드를 통한 지분투자(35조 원), 대규모 공장 증설 및 중소/중견기업 증자 참여(15조 원)로 나뉜다.

지원 방식은 저리 대출(50조 원)과 인프라 구축(50조 원), 첨단기금/민간자금 조성 펀드를 통한 지분투자(35조 원), 대규모 공장 증설 및 중소/중견기업 증자 참여(15조 원)로 나뉜다. 이 중 코스닥 지분 유입과 직접 연결되는 자금은 지분투자(간접투자 35조 원)와 증자 참여(직접투자 15조 원)이며, 인프라/대출은 부채성 자금으로 직접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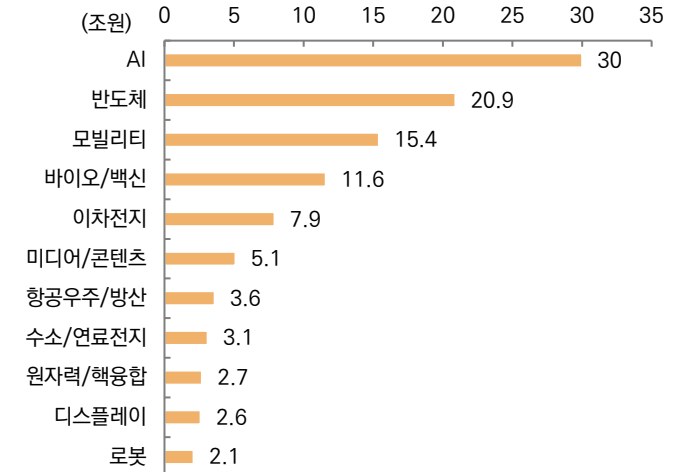
산업별 자금 배분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30조 원, 반도체 20.9조 원, 모빌리티 15.4조 원, 바이오/백신 11.6조 원에 집중 배분되며 이차전지(7.9조 원)와 미디어/콘텐츠(5.1조 원) 등에도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는 코스닥 비중이 높은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산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림 4. 국민성장펀드 조달 및 배분안



자료: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국민성장펀드 산업별 배분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국민성장펀드 정책 자금 집행은 이미 진행 중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특징은 기업 성장 단계상 후기 성장기업(벤처/중소/중견 및 첨단/대기업/인프라)에 집중한다는 점이다(그림 6). 특히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목적 투자에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10% 이상(최대 30% 이상)을 배분하도록 의무화했고, 40% 이내의 자율 투자에서도 비상장사,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을 포함한다.

그림 6. 기업 성장 단계 내 국민성장 펀드 위치(하늘색 음영): 상장 기업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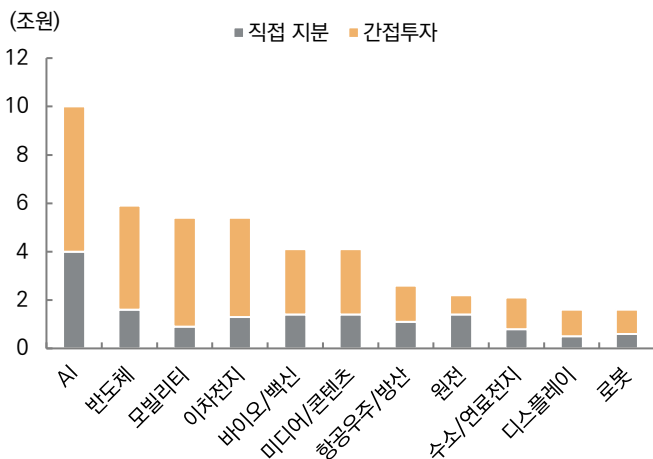
구분	벤처기업	성장기업	벤처, 중소, 중견	첨단, 대기업, 인프라
지원체 (공공)	모태펀드 (중기부 등)	성장지원펀드 성장사다리 등	(주력 산업) 산/기은, 신보 등 (첨단산업 생태계) 기존 기관 +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	신기사/창투사/초기 VC	VC, PE	은행, 보험 생산적 금융 강화 증권사 모험자본공급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

이 중 코스닥 지분 유입과 직접 연결되는 자금은 지분투자(간접투자 35조 원)와 증자 참여(직접투자 15조 원)이다. 직접지분 투자(15조 원) 및 간접투자(35조 원)의 산업별 배분 예시는 <그림 7>과 같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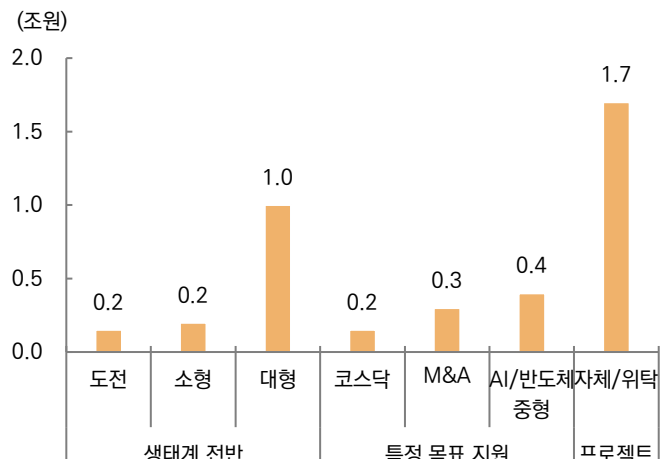
간접투자 분야 1차분(3조 9천억 원 규모)의 특정목표 지원 분야는 코스닥, M&A, AI/반도체/중형 등 3개 리그로 구성된다. 이 중 코스닥 리그 위탁운용사는 프리IPO 단계 또는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AI/반도체/중형 리그'는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AI/반도체 기업에 목표 결성액의 60%를 투자한다(그림 8).

그림 7. 국민성장펀드 내 직접/간접 투자분(50조 원) 배분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간접투자 분야 1차(3조 9천억 원 규모) 투입 분야



자료: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이 별도 리그로 분리되어 자금이 배정된다는 점에서, 중소형 코스닥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일정 부분 확보된 상태이다. 또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 리스크가 컸던 적자 성장 기업의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된다.

집행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메가 프로젝트'는 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등 국가 전략 산업 및 지방성장 지원 사업을 발굴해 자금을 집행한다(표 2). 1차 메가프로젝트는 11조 7천억 원 규모로 완료되었으며, 현재 2차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차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5월 28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총 5건의 직접투자, 인프라투자 및 대출건을 승인했다. 대표 프로젝트는 퓨리오사 AI(NPU 설계/양산), SK바이오사이언스(폐렴구균 3상 신약개발) 지원이다. 퓨리오사 AI에는 8천억 원 내외의 직접 지분 투자(첨단기금 3,700억 원)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3천억 원 대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1~5월까지 누적 승인 금액은 12조 5천억 원(16건)으로 지원 목표액(30조 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기대된다.

표 2. 메가 프로젝트 1, 2차 주요 내용 및 지원 사례

차수	프로젝트 명	주요 지원 내용	지원 사례
1차	K-엔터테인먼트(팝리스) 육성	국산 AI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리벨리온(6,400억 원 투자 집행)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지역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초대형 신재생 단지 조성	신안우이 해상풍력(3조 4,000억 원 집행)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	파운드리 생산 라인 인프라 구축 및 가동 자금 공급	평택 반도체 생산기지(2조 5,000억 원 집행)
	차세대 배터리 공급망	배터리 핵심 소재 국산화 및 지방 생산 공장 증설	후성(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공장 165억 원 집행)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단지(인프라 구축 중)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내 소부장 협력사 생태계 육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사 군단(지원 진행 중)
	전력반도체 국산화	전기차/친환경 산업 필수 부품인 차세대 전력반도체 양산	충북 지역 전력반도체 생산기업(시설 자금 지원)
2차	소버린 AI(Sovereign AI)	대한민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자체 생태계 고도화	업스테이지(투자 승인), 퓨리오사AI(직접 지분투자), 스마일게이트(인프라투자)
	차세대 바이오/백신	유망 바이오 기업의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및 글로벌 임상 지원	비티젠(대출 지원), SK바이오사이언스(대출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글로벌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프리미엄 설비 투자	(대출) 대기업, 지역/수도권
	미래 모빌리티 및 방산	무인기(드론) R&D 센터 및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국산화	(대출) 지역/수도권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	내륙형 태양광, 육상풍력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지	(인프라 투자) 지역
	새만금 첨단 벨트	비수도권 거점 중심의 첨단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직접투자, 인프라 투자, 대출) 지역

자료: 금융위원회, 언론 보도 취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시그널3] 코스닥 수급 다변화 및 기관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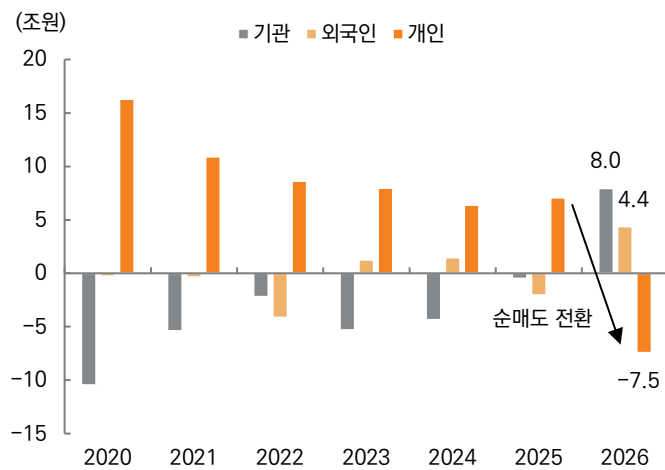
수급 변화 감지: 코스닥 수급 주체 다각화

코스닥은 전통적으로 개인 중심의 시장이었다. 그러나 2025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감지된다. 2026년 들어 개인은 코스닥에서 7.5조 원을 순매도했다(그림 9). ETF를 통한 개인 순매수 규모(5.4조 원)를 감안하면 실제 이탈은 약 2.1조 원에 그치나, 같은 기간 외국인이 4.4조 원을 순매수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도 빨라지고 있다(그림 10). 개인 비중은 2001년 95.3%에서 2024년 80%까지 연평균 -0.7%p씩 감소했다. 그러나 2025년 74.7%, 2026년(~5/28) 69.2%로 최근 2년 연평균 -5.3%p씩 빠르게 하락했다. 그간 코스닥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개인 위주의 시장 구성이 다각화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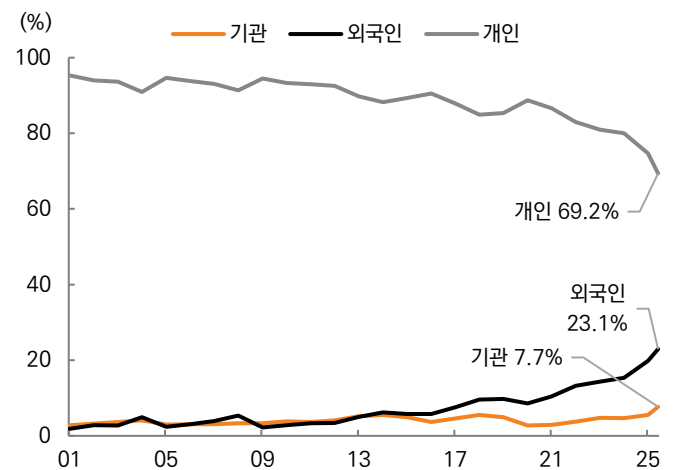
코스닥 ETF에 대한 외국인, 연기금 순매수도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 ETF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는 2024~2025년 합산 896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6년은 5월까지 약 3,670억 원이 유입됐다. 연기금 순매수 규모도 동기간 약 1,600억 원으로 확대됐다(그림 11, 12).

그림 9. 코스닥 주체별 순매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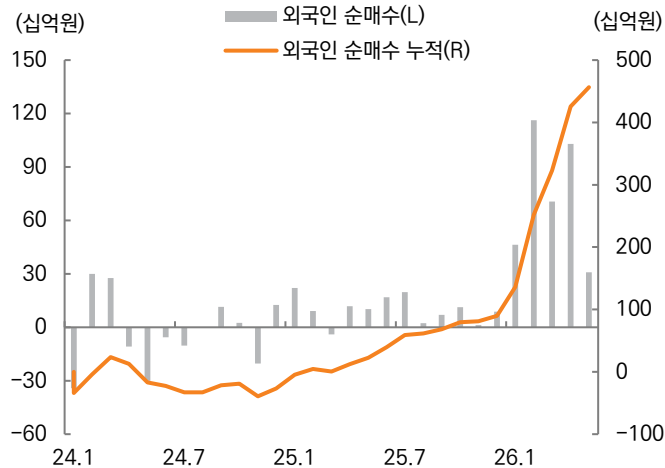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코스닥 거래대금 내 주체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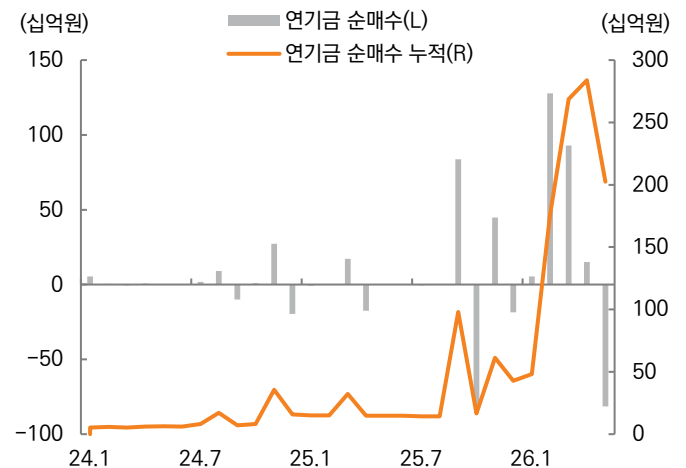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코스닥 ETF 외국인 순매수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코스닥 ETF 연기금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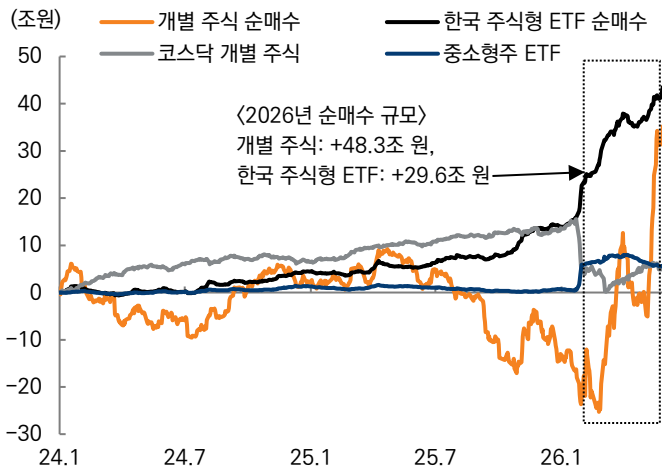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우호적으로 변화 중인 유동성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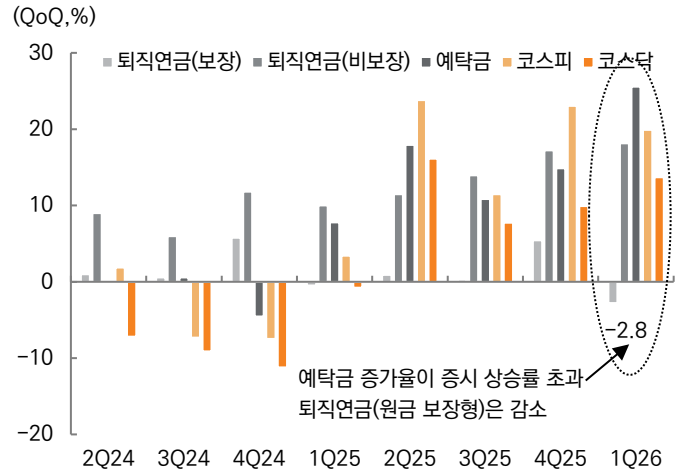
자금 환경 역시도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월 이후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패턴이 개별 주식에서 ETF로의 이전 구도에서 ETF와 개별 주식 동반 순매수로 전환된 점도 긍정적이다(그림 13). 이 외에 전반적인 자금 측면에서 전분기 대비 예탁금 증가율이 증시 상승률을 초과하고, 퇴직연금 내 원금 보장형 잔고가 감소를 보이는 등 증시를 둘러싼 유동성 환경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그림 14).

그림 13. 개인 순매수: ETF, 개별 주식 동반 유입 강화



주: 2026년은 5/28까지 합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퇴직연금, 예탁금, 코스피, 코스닥 전분기 대비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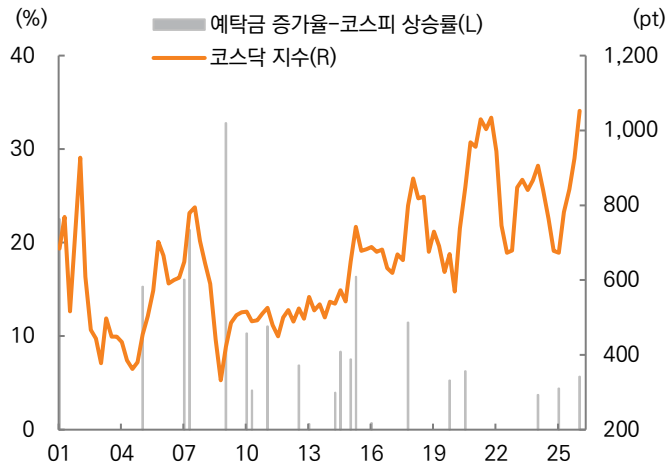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대기성 유동성은 예탁금과 CMA, MMF로 현재 계정별 잔고는 각각 122조원, 6.2조원, 259조원이다. 해당 계정 자금의 유입은 정책 이행과 코스닥 시장의 투기성 등락 축소, 꾸준한 성과의 실현이 확인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코스닥 상대강세의 조건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전분기 대비 예탁금 증가율이 증시 상승률을 초과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예탁금은 매수와 매도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대기자금' 성격이어서 코스피 상승률과 동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예탁금 증가율이 증시 상승률을 초과한 것은 시장 상승을 상회하는 외부 자금이 유입됐음을 뜻한다.

2026년 1분기 예탁금 증가율은 +25.6%로 코스피 상승률 +19.9%를 +5.7%p 초과했다. 분기 단위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예탁금 증가율이 코스피 상승률을 넘어선 것은 2000년 이후 104개 분기 중 21회 존재했으며, 이 중 코스닥 강세와 함께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한 경우는 16회였다(다음 장 그림 15). 코스닥의 상대 성과는 풍부한 유동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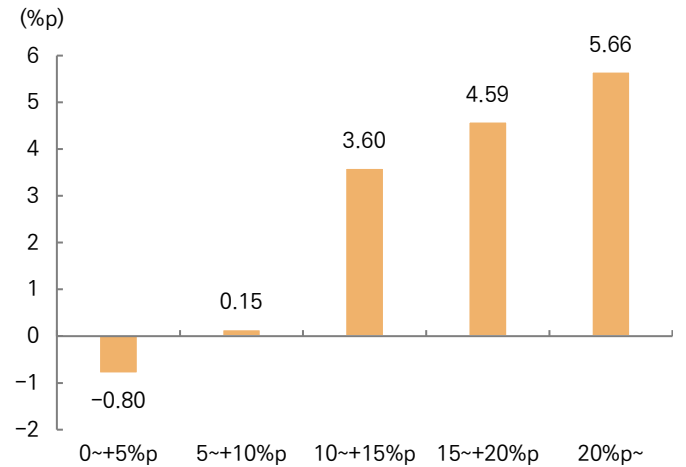
다음 장 (그림 16)에서는 코스피가 분기 단위로 상승하며 예탁금 증가율이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을 때 코스닥 시장의 코스피 대비 상대 성과를 나타낸다. 코스피 상승률 대비 예탁금 증가율이 0~+5%p 구간에서 코스닥의 코스피 대비 상대 성과는 평균 -0.8%p였으나, 코스피 상승률 대비 예탁금 증가율 폭이 클수록 코스닥의 상대 강세도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분기별 코스피 상승률 대비 예탁금 증가율, 코스닥 지수



주: '분기별 코스피 상승률 대비 예탁금 증가율'은 코스피 상승률 > 0이며 예탁금 증가율이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한 구간.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유동성 유입 케이스에서 코스닥의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



주: 유동성 유입 케이스는 분기별 코스피 상승률 > 0, 예탁금 증가율 > 코스피 상승률인 경우, 코스닥의 코스피 대비 상대 성과.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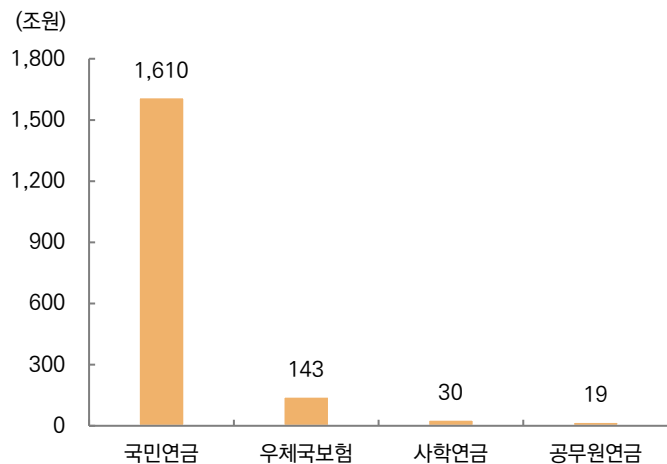
기금 운용 평가 기준 변경으로 대규모 장기 기관 자금 유입 기대

2026년 2분기 중 기금 운용 평가 내 '대형, 중소형 평가'에서 코스닥 150 지수가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대규모, 장기 기관 자금의 유입 유도'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 안은 코스피와 코스닥 150 지수를 각각 0.95, 0.05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해당 조치로 기관투자자의 장기 자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2025년 기준 4대 기금 전체 자산 규모는 1,800조 원에 달하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 평가 대상 연기금 중 3대 연기금의 '국내 주식' 운용 규모는 약 401조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만 코스닥으로 이동하더라도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그림 17). 5%만 추가로 유입되더라도 약 20조 원 이상의 수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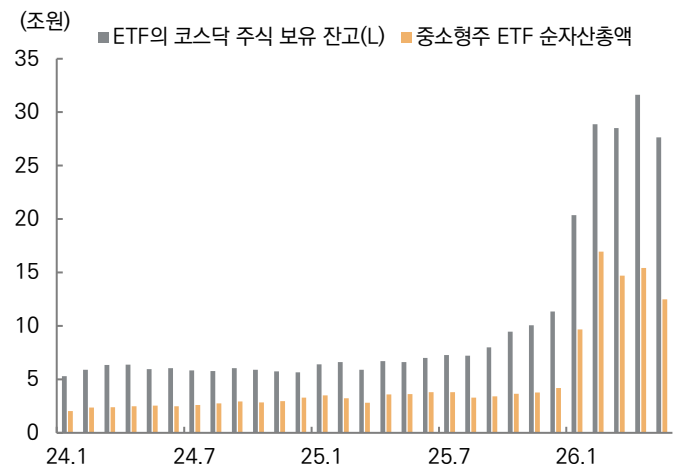
운용의 편의성과 코스닥 시장의 정보 제약 등을 감안할 때 ETF를 통한 유입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전체 운용자산은 12.9조원 규모로 설정/환매를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그림 18).

그림 17. 4대 기금 자산 규모



자료: 각 기금 공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한국 주식형 ETF가 보유 중인 코스닥 주식 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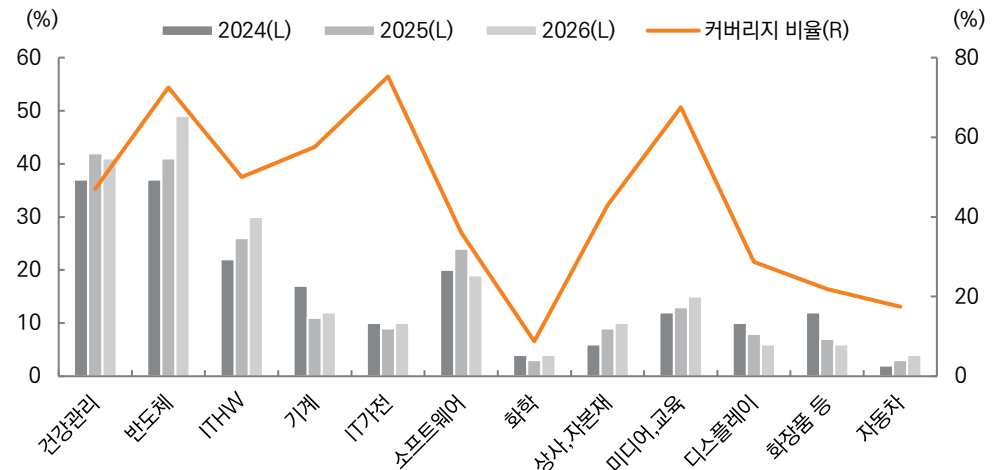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또한 한국 주식형 ETF가 보유한 코스닥 주식의 잔고는 27.7조 원 규모로 코스닥 지수 직접 추종형 ETF 외에도 다양한 상품에 분산되어 있어 운용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일본 사례처럼 시장 개편 및 승강제 도입 등 제도를 반영한 지수를 도입하고, 기관 자금 유입이 해당 지수 추종 ETF를 통해 이뤄질 경우 정책의 강제성이 높아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 보안을 위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는 리서치 보고서 확충, 공시 의무 확대 등이 담겼다. 리서치 보고서 확충은 스몰캡 전담 애널리스트 수를 확대하고, 관련 보고서 발행 수 역시 1.5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19>는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코스닥 산업별 투자의견 참여 증권사가 존재하는 기업 수 추이 및 커버리지 비율로 대다수 산업의 커버리지 비율이 5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 의무 확대는 개정 전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기업에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그림 19. 코스닥 산업별 투자의견 참여 증권사가 존재하는 기업 수 추이 및 커버리지 비율(2026)



주: 커버리지 비율은 산업별 시가총액에서 투자의견 참여 증권사가 1개사 이상 존재하는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2026.5.30 기준), 산업은 산업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대상,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Case Study] 일본, 구조 개혁과 자금 유입 동반

목적과 조건이 뚜렷한 3개 시장으로 재편

일본 거래소(JPX)는 2022년 4월,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복잡한 상장 시장을 3개로 재편했다. 과거 제1부, 제2부, 마더스, 자스닥 등으로 구분되던 시장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일본 주식시장의 글로벌 지위 하락을 막기 위해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도입했다. 각 세그먼트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규모에 맞춰 진입 및 유지 조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차등 설정했다(표 3).

표 3. 일본 시장 개편 후 시장별 요건

시장 구분	프라임(Prime)	스탠다드(Standard)	그로스(Growth)
시장 개념	글로벌 기업 대상	일반적인 투자 대상	성장 가능성 염두에 둔 신흥 및 벤처 기업
주주 수	800명 이상	400명 이상	150명 이상
유통 주식 수(1단위: 100주)	20,000단위 이상	2,000단위 이상	1,000단위 이상
시가총액 기준	250억 엔 이상	별도 제한 없음	상장 후 5년 지났을 때 100억 엔 이상 필수
유통 주식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	10억 엔 이상	5억 엔 이상
유통 주식 비율	35% 이상	25% 이상	25% 이상
거래대금 / 거래량	월평균 거래대금 0.2억 엔 이상	월평균 거래량 10단위 이상	월평균 거래량 10단위 이상
수익 기반 및 재무 상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1) 최근 2년 이익 합계 25억 엔 이상 2) 매출액 100억 엔 + 예상 시가총액 1,000억 엔 ※ 자기자본 50억 엔 이상	건전한 재무 상태 유지 필요	별도 제한 없음
기업 지배구조 규정	기업 지배구조 지침의 모든 원칙 적용	기본 원칙 및 일반 원칙 적용	기본 원칙 적용

자료: 일본 거래소(JPX),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일본거래소의 시장 재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2020년 2월 최종안을 공표한 뒤 2022년 1월 소속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3개 시장(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으로 공식 재편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PBR 1배 미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2023년 7월 JPX Prime 150 지수를 발표한 데 이어 2025년 3월 경과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했다. JPX Prime 150 지수는 기관투자자의 새로운 벤치마크로 활용되며 우량 기업으로의 자금 집중을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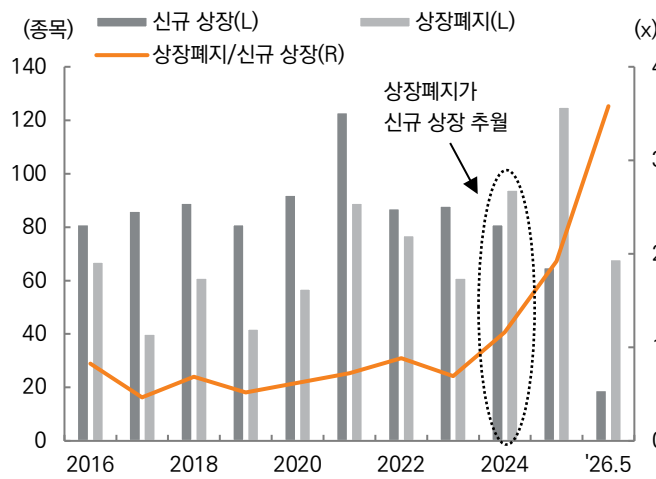
여기에 일본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이 더해졌다. 특히 신(新) NISA와 같은 정책적 세제 혜택 상품을 도입해 국민 자금이 저축에서 투자로 이동하도록 장려했다. 결국 제도 개편(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시장 개편)과 자금 유입(세제 혜택)이 동반되며 우량주로의 자금 집중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개편 핵심은 '부실 기업의 퇴출'

승강제와 강력한 퇴출 제도의 결합은 일본 주식 시장에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실 기업이 시장에서 빠르게 걸러지며 신규 상장보다 상장폐지 기업 수가 많아진 역전 현상이다. 2024년 일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종목 수는 94종목으로 신규 상장(81종목)을 처음으로 앞섰다(다음 장 그림 20). 신규 상장 종목 수 대비 상장폐지 종목 수 역시도 202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1.9배, 2026년(~5월)은 3.6배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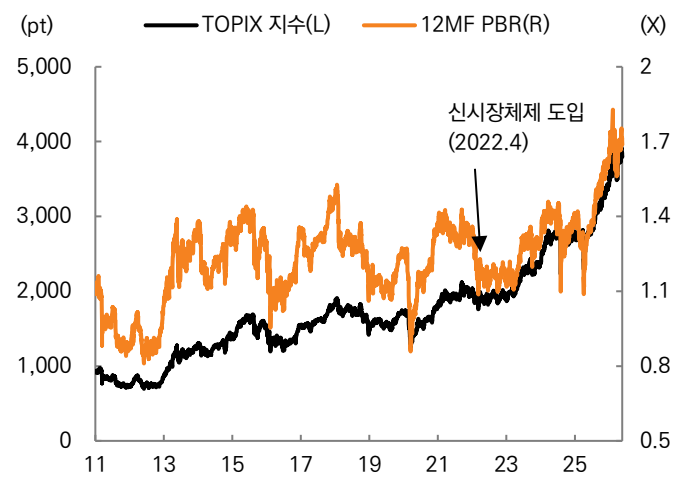
부실 기업의 퇴출은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3년 이전 13년간 평균 1.2배에 머물던 TOPIX 지수의 12개월 선행 PBR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6년 5월 현재 1.7배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림 20. 일본 신규 상장 종목 수, 상장폐지 종목 수 추이



주: 2026년은 5월말까지 신규 상장/상장폐지 예정인 종목까지 합산, 자료: 도쿄증권거래소(T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TOPIX 지수 12MF PBR 추이: 23년 이전 평균 1.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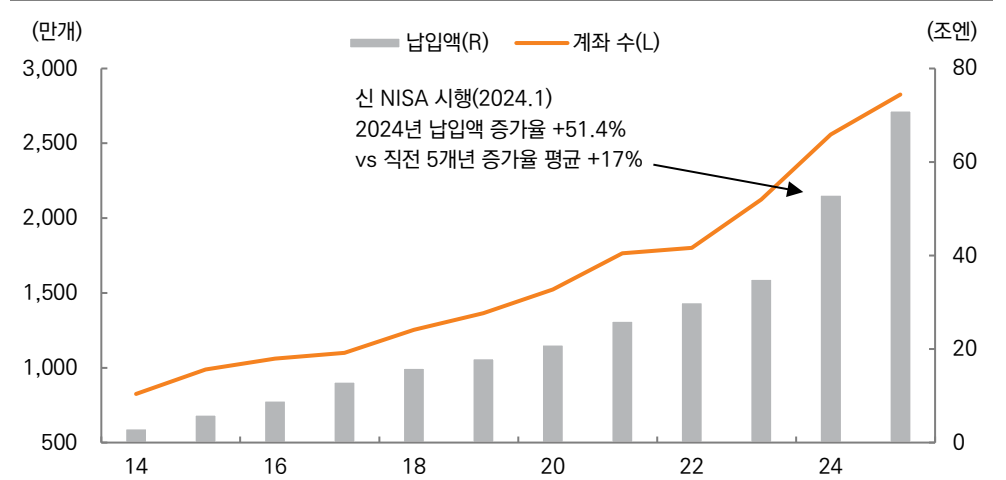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신 NISA 계좌가 촉진한 일본 가계의 머니무브

일본의 머니 무브도 참고할 만하다. 2014년 NISA 도입 이후 계좌 수와 누적 납입액은 꾸준히 증가했고 2024년 신 NISA 도입과 함께 납입액이 급증했다(그림 22). 급증 배경은 비과세 한도의 확대다. 기존 NISA는 일반 5년, 적립형 20년의 기한과 연간 120만 엔(일반), 40만 엔(적립형)으로 설정됐다. 반면 신 NISA는 기한이 무기한으로 바뀌고 연간 투자한도가 360만 엔, 생애 한도가 1,800만 엔으로 크게 늘었다. 투자 가능한 상품도 늘어나면서 납입액 역시 증가를 보였다.

그림 22. 일본 NISA 가입 계좌 수 및 누적 납입액 추이



자료: 일본 금융청,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코스닥 ETF 투자 전략

2026년 하반기 코스닥 주도 산업 찾기

2026년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계의 주도 지속과 건강관리 산업의 반전을 전망한다. 상대적으로 컨센서스가 풍부한 코스피의 산업별 실적 전망과 함께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배분/집행을 고려한 전망이다.

코스피 매출액 추정치 기준으로 반도체와 기계, 건강관리의 성장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후방 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특성상 매출액 증가율의 영향력이 특히 크다. 또한 증권사 커버리지 역시 해당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정책 연관성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기계, IT하드웨어, 건강관리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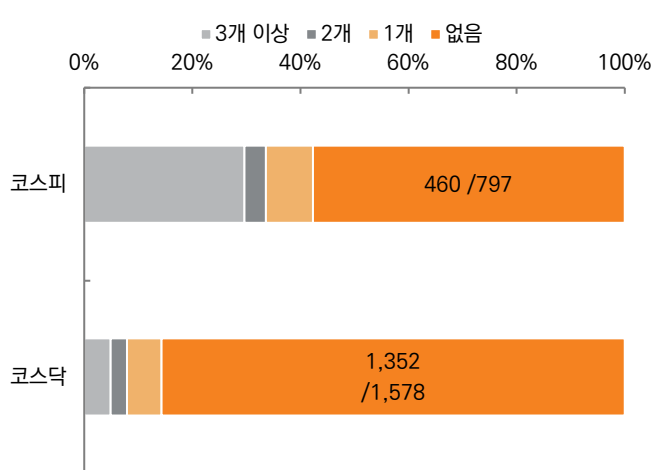
코스피를 통해 살펴본 실적 주도 산업은 반도체와 기계, 건강관리

증권사 컨센서스만으로는 코스닥 산업의 실적을 전망하기 어렵다. 최근 커버리지 개시가 늘었음에도 전체 코스닥 상장사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23>은 '투자 의견 참여 증권사 수'로 측정된 시장별 컨센서스 존재 기업 현황이다. 1개 사 이상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기업의 비중은 코스피가 42.3%인 반면 코스닥은 14.3%에 그친다. 3개 사 이상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기업의 비중은 코스피가 29.6%이나 코스닥은 4.9%에 불과하다.

간접적으로나마 코스닥의 산업별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코스피 산업별 컨센서스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일 산업 분류 내에서 코스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변화가 코스피에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는 소재나 부품, 장비 등 특정 전방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주 위주여서, 코스피 실적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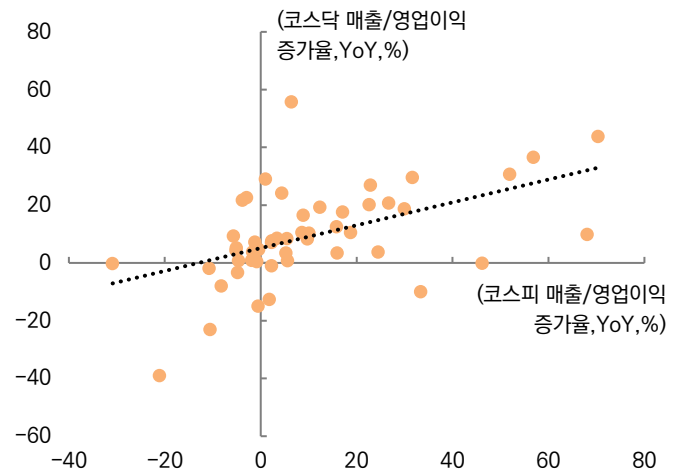
<그림 24> 및 다음 장 <그림 25, 26>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와 동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시장별 컨센서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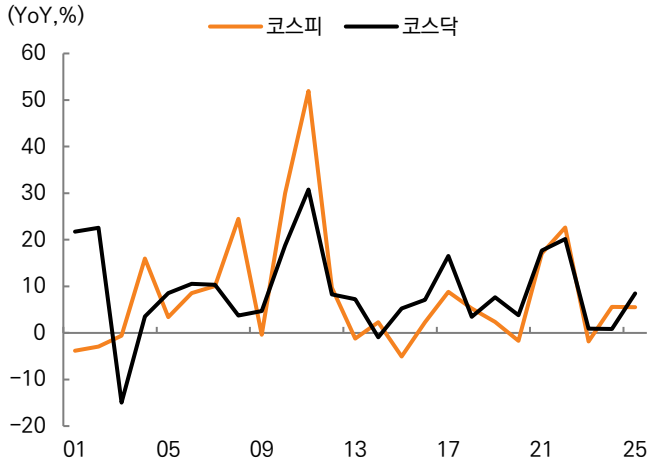
주: 컨센서스 현황은 '투자 의견 참여 증권사 수'로 측정,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4. 코스닥 실적은 코스피 실적에 비례(2001~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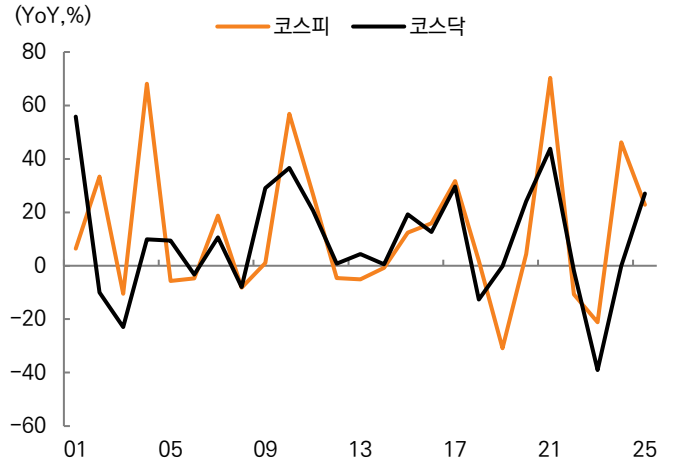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5.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2001~2025년)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6.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2001~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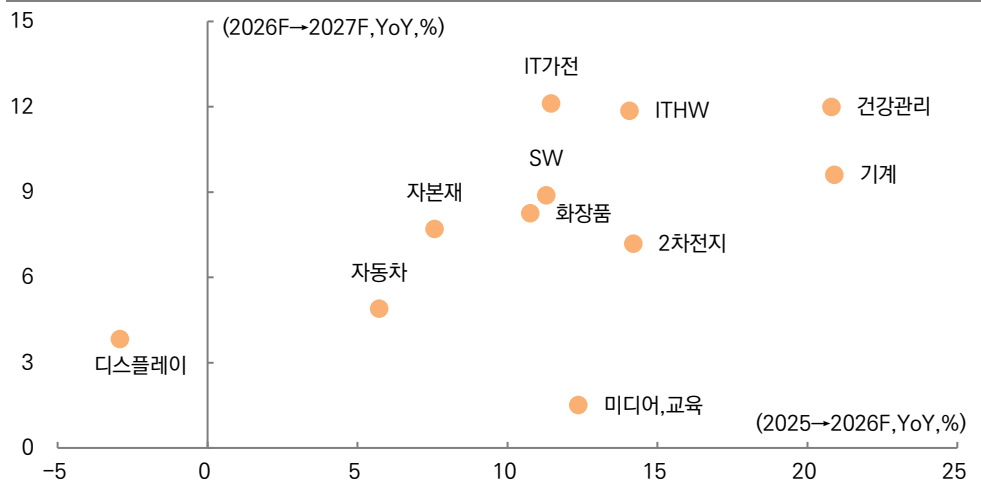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후방 산업 기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보다 매출액 증가율의 영향력이 더 크다. 전방 산업의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에 대한 주문량(Q) 자체가 증가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코스피 산업의 매출액 전망을 보면 향후 2년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산업은 반도체와 기계, 건강관리다. 반도체는 2025년 대비 2026년 +136.3%, 2026년 대비 2027년 +25.6% 매출액 성장이 전망된다. 기계와 건강관리는 2026년 20% 이상 매출액이 증가하고, 2027년에도 꾸준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그림 27). 이 외에 IT하드웨어와 2차전지도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 코스피 산업별 2025, 2026F, 2027F년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추정치)



주: 코스닥 산업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산업 대상,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은 2025→2026F +136.1%, 2026F→2027F +25.4%, 코스피 산업 내 컨센서스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기업 대상, 2026.5.30 조회 기준,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주도 산업, ETF로 따라잡기

코스닥 ETF 시장 구성

현재 코스닥 지수를 직접적으로 추종하거나, 편입 종목의 코스닥 비중이 70% 이상인 ETF는 34개 종목, 순자산총액은 11조 3,018억 원(레버리지 제외)이다(표 4). 액티브를 포함한 대표 지수 ETF가 8조 9,197억 원(17종목)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테마(9,367억 원, 4종목), 섹터/산업(1조 4,356억 원, 12종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터/산업은 헬스케어/바이오(1조 1,883억 원) 위주이다.

표 4. 코스닥 지수 추종 및 코스닥 비중 70% 이상인 ETF (2026.5.28 기준, 레버리지 제외)

구분	티커	ETF 명	순자산총액	코스닥 비중
대표 지수+대표 기타	A229200	KODEX 코스닥150	52,026	100
	A232080	TIGER 코스닥150	17,072	100
	A270810	RISE 코스닥150	4,466	100
	A354500	ACE 코스닥150	1,810	100
	A316670	KIWOOM 코스닥150	526	100
	A450910	SOL 코스닥150	457	100
	A0192T0	SOL 코스닥TOP10	294	100
	A461450	KODEX 코스닥글로벌	290	100
	A304770	HANARO 코스닥150	283	100
	A0186S0	1Q 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	145	100
	A0191S0	IBK 코스닥150	142	100
	A461580	TIGER 코스닥글로벌	137	100
	A301400	PLUS 코스닥150	136	100
	대표(액티브)	A0163Y0	KoAct 코스닥액티브	6,801
A0162Y0		TIME 코스닥액티브	4,096	100
A0166N0		PLUS 코스닥150액티브	440	100
A0191B0		MIDAS 코스닥액티브	77	100
섹터/산업(헬스케어)	A462900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5,473	80
	A244580	KODEX 바이오	2,714	75
	A0168K0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1,613	78
	A0000Z0	RISE 바이오TOP10액티브	990	93
	A261070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778	100
	A464610	SOL 의료기기소부장Fn	155	86
	A0184V0	UNICORN 코스닥바이오액티브	105	100
	A307510	TIGER 의료기기	56	96
섹터/산업(반도체)	A475300	SOL 반도체전공정	917	91
	A476260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228	90
섹터/산업(정보기술)	A261060	TIGER 코스닥150IT	405	100
섹터/산업(미디어)	A228810	TIGER 미디어컨텐츠	923	87
테마	A0148J0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7,581	70
	A475050	ACE KPOP포커스	1,303	78
	A0150K0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액티브	443	73
	A476000	UNICORN 포스트IPO액티브	40	99
스타일(배당)	A270800	RISE KQ고배당	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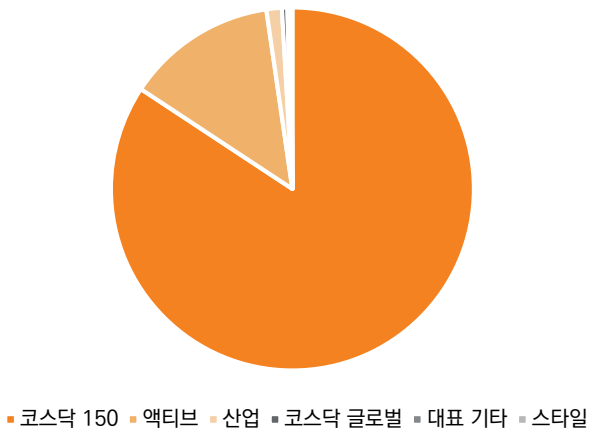
주: 코스닥 비중은 ETF에 편입된 종목의 상장 시장 비중으로 계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편입 종목의 코스닥 비중이 70% 이상인 ETF를 함께 포함한 이유는, 코스닥 지수를 직접 추종하는 ETF만으로 유니버스를 구성할 경우 코스닥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스닥 지수 추종 ETF 내 코스닥150 지수 비중은 최근 상장된 코스닥 액티브 ETF를 제외하면 85%에 달한다(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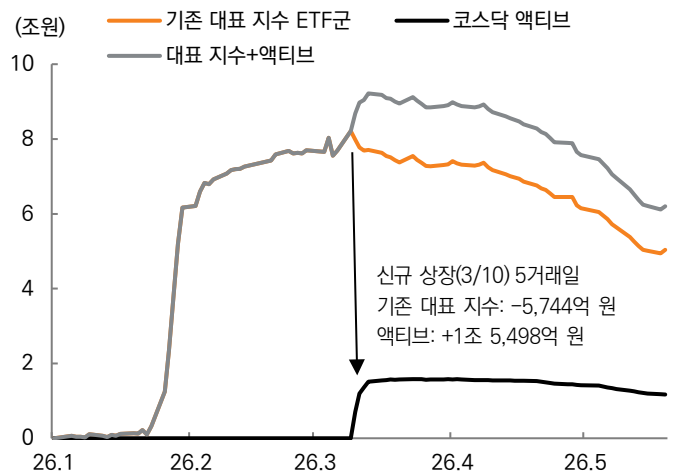
신규 ETF 등장 시 기존 코스닥150 ETF에서 빠져나가는 자금도 유의할 부분이다. <그림 29>에서는 코스닥 액티브 ETF 신규 상장(3/10) 과정에서 기존 코스닥150 ETF의 자금 유출이 확인된다. 일본 거래소(JPX)는 승강제를 도입하면서 JPX Prime 150 지수 및 ETF를 함께 출시해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했다. 한국에서도 승강제 시행과 맞물려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신규 지수 개발과 ETF 상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28. 코스닥 지수 직접 추종 ETF는 코스닥 150 비중이 압도적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9. 기존 대표 지수 ETF군, 코스닥 액티브 ETF 자금 동향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를 감안하여 1) 코스닥 지수 추종 ETF 및 코스닥 종목 비중이 70% 이상이고, 2) 순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인 ETF를 유니버스로 두고, 3) 반도체와 건강관리, 기계 비중의 합산이 높은 ETF를 핵심 ETF로 선정했다(표 5). 이와 함께 코스닥 섹터/산업별로 ETF를 선정해 관심 ETF로 선정했다.

표 5. 코스닥 시장 핵심, 관심 ETF

구분	티커	ETF 명	순자산총액 (억원)	합산 비중 (%)	반도체 (%)	건강관리 (%)	기계 (%)
핵심	A0148J0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7,581	74.13	0	1.79	72.34
	A0168K0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1,613	95.61	0	95.61	0
관심	A232080	TIGER 코스닥150	17,072	65.19	24.32	34.2	6.67
	A471760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	1,838	70.75	70.75	0	0
	A228810	TIGER 미디어컨텐츠	923	0	0	0	0
	A261070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778	99.58	0	99.58	0
	A261060	TIGER 코스닥150IT	405	71.95	63.16	0.31	8.48
	A461580	TIGER 코스닥글로벌	137	58.75	32.93	25.47	0.35
	A307510	TIGER 의료기기	56	98.21	0	98.21	0

주: 2026.5.28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핵심 산업 및 관련 ETF

기계 산업: 전력, 로봇, 항공우주 등 높은 기대감 지속

[산업 개요] 코스닥 기계 산업은 1) 산업용 기계와 산업용 구성 요소 제조업체, 2) 대형 트럭, 건설 장비, 대형 농기계 및 열차 등을 생산하거나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3) 전기 케이블, 전선, 전기 구성요소 등의 전기장비 생산업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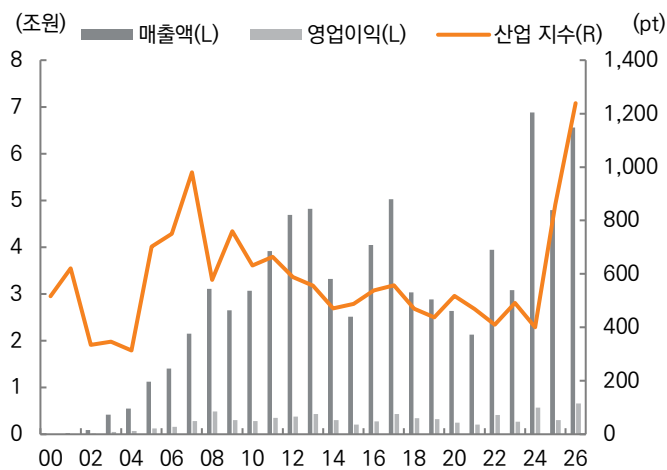
[주요 포인트] 글로벌 휴머노이드 산업의 지속적 성장 전망

기계 산업은 이번 국민성장펀드 내에서 노출도가 높다. 직접적으로는 항공우주/방산(3.6조 원), 로봇(2.1조 원) 및 모빌리티(15.4조 원)까지 해당되며, 인프라 구축 관련 기반 산업으로서 데이터센터 건설, 전력 반도체 생산 등에서 간접 수혜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술자문역 60인 풀 구성에서는 IT/로봇/소재(20명)으로 2순위에 배치되면서 정책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실제로 정책 발표(12/19) 이후 기계 산업은 +5.2% 상승하며 같은 기간 코스닥 상승률(+2%)을 상회했다.

코스피 기계 산업은 HD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등 전력기기, 중공업 대형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매출액은 2025년 대비 +10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후방 산업 성격의 코스닥 기계 산업 종목의 경우, 데이터센터 구조물, 특수 배관 피팅, 기타 기계 부품 등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코스피 대형주의 수주 확대에 직접적 수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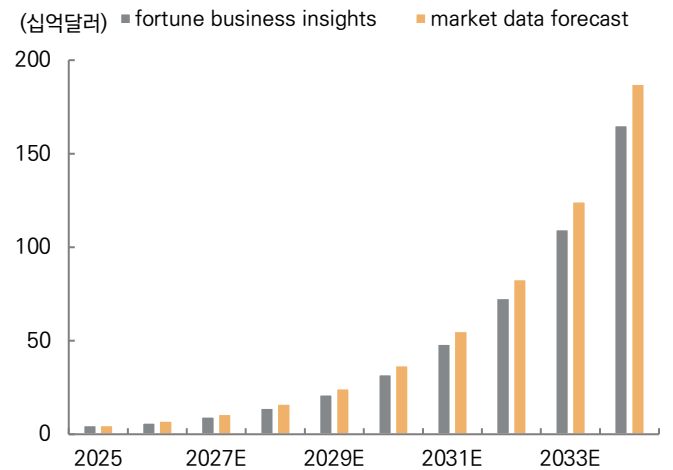
기계 산업 내에서도 향후 성장 기대감이 높은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다. 고령화 및 산업 내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라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4년까지 1,650~1,8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1). 국내에서는 2025년 8월 AI 개발사, 로봇부품/제조사, 로봇 수요기업 등을 주축으로 하는 Humanoid M.AX Alliance를 구성하고 2028년부터는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코스닥 기업과 연계하여 휴머노이드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림 30. 산업 매출액/영업이익, 지수 추이: 기계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1.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TF]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A0148J0)

[ETF 개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테마 ETF로, KEDI 코리아 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 (PR) 지수를 추종한다.

해당 지수는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2천억 이상/일정 유동성 충족 종목을 대상으로, 2) KICS Primary Level 5 기준 (1) Motor and Generator Manufacturing, (2) Motor Vehicle Transmission and Power Train Parts Manufacturing, (3) Computer Systems Design Services 등에 해당되는 종목을 유니버스로 한다. 3) 최종 선정은 키워드 유사도 점수(80%), 시가총액 점수(20%)를 반영하여 상위 15개 기업을 선정하며, 4) 비중 배분은 키워드 유사도 점수, 시가총액 점수를 각각 50% 기준으로 가중 배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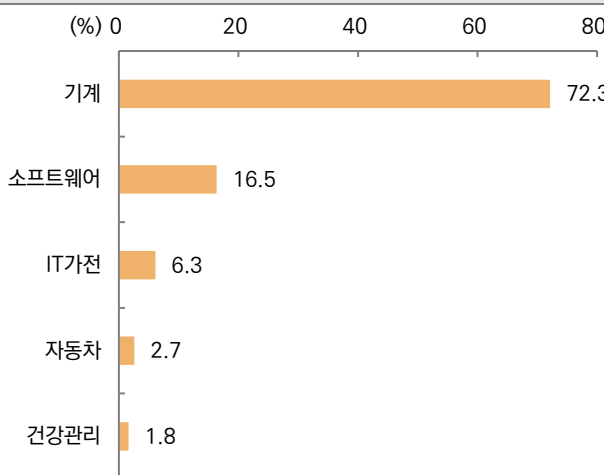
[편입 비중 상위 종목] 편입 비중 상위 코스닥 기업인 로보티즈(A108490)는 액츄에이터 및 감속기 전문 기업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투자 의견 제시 증권사 수도 증가 중이다. 에스피지(A058610) 역시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예상된다.

표 6. 편입 비중 상위 종목(시가총액/매출액/영업이익: 억원, 비중/수익률: %, 2026.5.29 기준)

비중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025	2026F	2027F	2025	2026F	2027F
15.1	A277810	레인보우로보틱스	136,187	341	600	1,320	-25	40	120
13.4	A454910	두산로보틱스	69,033	330	590	1,280	-595	130	400
12.9	A108490	로보티즈	47,709	389	649	1,080	33	93	216
9.4	A307950	현대오토에버	255,317	42,521	47,613	55,111	2,553	2,766	3,724
7.2	A064400	LG씨엔에스	110,256	61,295	66,108	72,391	5,518	6,160	7,068
7.1	A319400	현대무백스	44,272	3,939	4,640	5,630	182	210	250
6.3	A058610	에스피지	25,859	3,417	3,625	3,901	179	230	262
5.6	A160190	하이젠알앤엠	9,174	735	-	-	-89	-	-
5.1	A090360	로보스타	9,165	757	0	0	-57	0	0
4.7	A348340	뉴로메카	6,589	190	0	0	-149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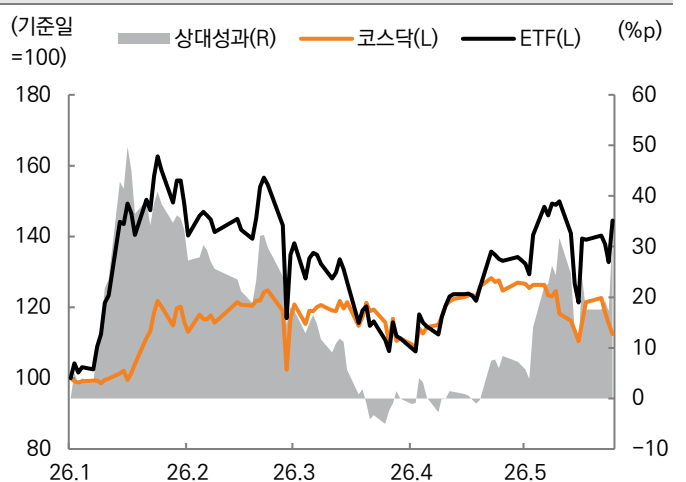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2. 산업별 비중(WI26, %, 2026.5.28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3. ETF 추가 및 코스닥 대비 상대 성과 추이(~2026.5.29)



주: 기준일 2026.1.6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건강관리 산업: 학회 시즌 개시, 기술 이전 기대 본격화

[산업 개요] 코스닥 건강관리 산업은 의료기기와 진단장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건강관리 용품 및 의료용제품 제조업체와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편입되어 있다. 이와 함께 첨단 생물공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제품 관련 업체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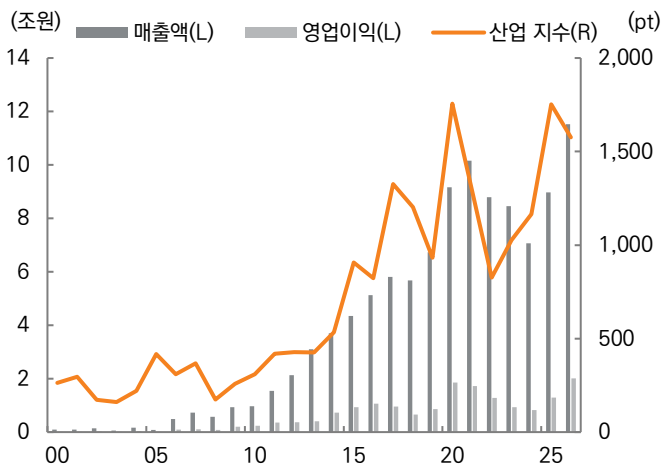
[주요 포인트] 높은 정책 연관도, 바이오 기업 기술 수출 기대감

코스닥 바이오 산업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의 연관도가 높다. 정부의 기술자문역 60인 풀 구성에서 바이오는 AI, 우주와 함께 10명이 배정되며 최우선 순위에 배치됐다. 국민성장펀드 내에서도 AI, 반도체 등과 함께 12개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됐고, 바이오/백신 분야에는 11.6조원이 배정됐다. 메가 프로젝트 2차에서 차세대 바이오/백신 관련 기업인 비티젠이 장기 저리 대출 지원을 승인받으면서 정책 집행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 건강관리 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형 바이오 기업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다. 셀트리온(A068270)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2026년 +27.4%로 예상된다. 코스닥 바이오 기업의 실적 모멘텀도 강하다. 특히 2025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으며, 2024년 이후 기술 이전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그림 35). 글로벌 빅파마가 보유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2025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만료 이전의 기술 수출 금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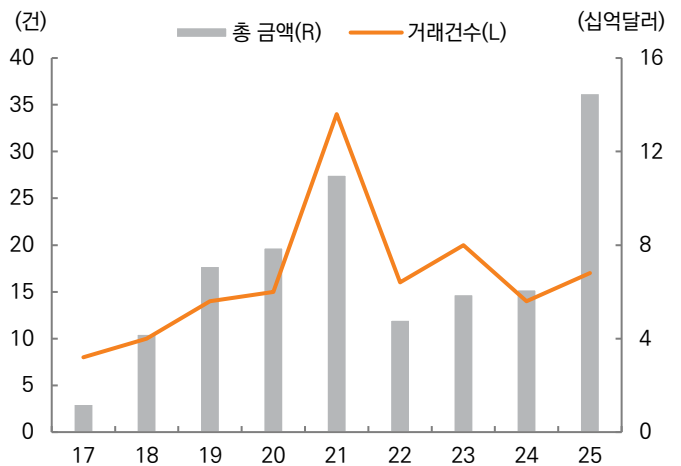
특히 5월 말부터 6월 초는 ASCO(5월)와 ADA(6월) 등 주요 학회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정책 기대감과 함께 파이프라인 이벤트가 섹터 전반의 수급을 좌우하는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산업 매출액/영업이익, 지수 추이: 건강관리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5. 한국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거래건수 및 금액



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TF]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A0168K0)

[ETF 개요] 국내 바이오 기업 중 최근 5년간 기술이전 계약 금액이 높은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하는 액티브 ETF로, 코스닥 종목 비중은 78%이다.

비교 지수는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 종목을 대상으로, 2) AICS 기준 주 분류가 (1) Pharmaceutical and Medicine Manufacturing, (2)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Manufacturing, (3)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중 하나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4) 최근 60개월 이내 기술이전 금액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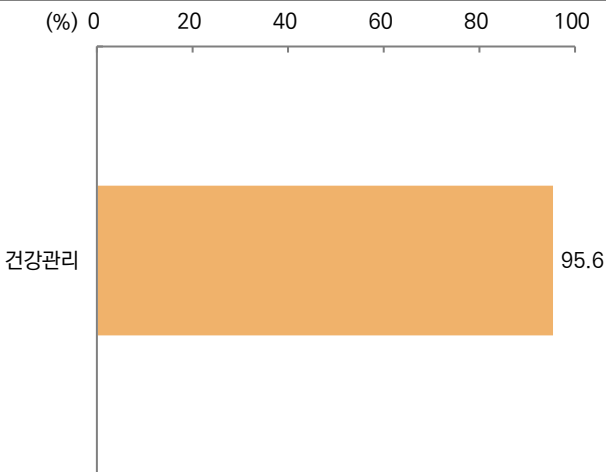
[편입 비중 상위 종목] 현재 14.7%로 비중 1위인 올릭스(A226950)는 RNAi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및 탈모/비만/대사질환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 OLX301A, CNS/지방조직 타겟 RNAi 플랫폼 중심으로 추가 기술 이전을 진행 중이다. 리가캠바이오(A141080)(10.5% 편입)는 2026년 이후 오노약품 2건, 소티오 1건의 마일스톤이 발생했다.

표 7. 편입 비중 상위 종목(시가총액/매출액/영업이익: 억원, 비중/수익률: %, 2026.5.29 기준)

비중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025	2026F	2027F	2025	2026F	2027F
14.7	A226950	올릭스	35,546	147	80	110	-300	-310	-300
10.5	A141080	리가캠바이오	55,936	1,416	2,320	2,718	-1,065	-273	73
6.6	A298380	에이비엘바이오	62,650	793	723	952	-404	-486	-412
6.1	A347850	디앤디파마텍	41,439	43	0	0	-340	0	0
5.2	A397030	에이프릴바이오	14,938	22	115	245	-73	40	155
4.8	A009420	한올바이오파마	32,650	1,552	1,693	1,929	-9	15	88
4.4	A128940	한미약품	62,902	15,475	16,416	17,892	2,578	2,642	3,078
4.3	A068270	셀트리온	428,474	41,625	53,040	61,111	11,685	17,627	20,975
4.3	A237690	에스티팜	27,975	3,317	4,147	5,116	549	765	1,010
4.2	A196170	알테오젠	197,734	2,159	-	-	1,06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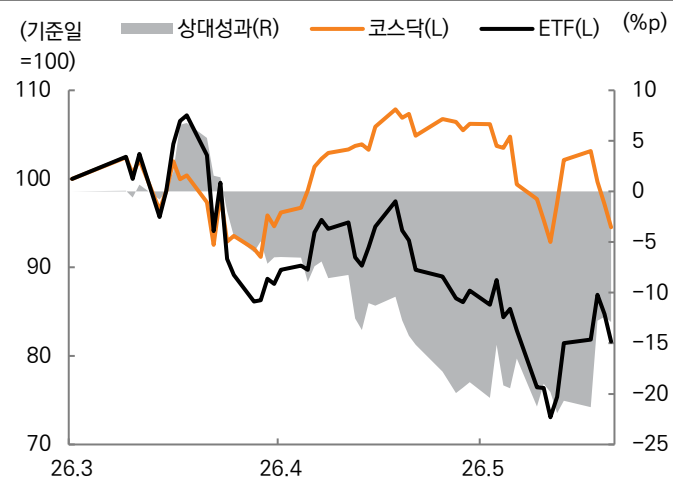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6. 산업별 비중(WI26, %, 2026.5.28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7. ETF 추가 및 코스닥 대비 상대 성과 추이(~2026.5.29)



주: 기준일 2026.3.10,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관심 ETF

(대표 지수: 코스닥 150) TIGER 코스닥150(A232080)

[ETF 개요] 코스닥 지수 전체를 추종하는 ETF는 없으며, 코스닥 150 지수 ETF가 대표 지수 ETF이다. 코스닥 150 지수는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서, 2) 산업군별로 누적 시가총액 60% 이상에 해당하며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유니버스로 선정한다. 해당 유니버스 내에서 3)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을 선정하며 유동 시가총액 가중으로 비중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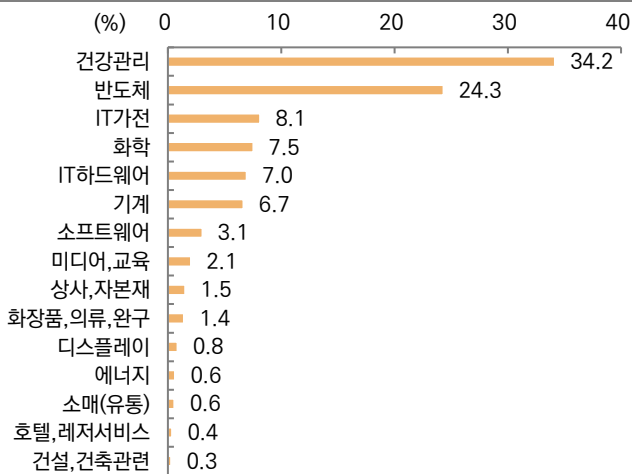
[편입 비중 상위 종목] 알테오젠(7.1%), 에코프로(6.7%), 에코프로비엠(5.5%) 등이다. 건강관리 비중이 34.2%, 반도체가 24.3%로 두 개 산업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편입 비중 상위 종목(시가총액/매출액/영업이익: 억원, 비중/수익률: %, 2026.5.29 기준)

비중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025	2026F	2027F	2025	2026F	2027F
7.1	A196170	알테오젠	197,734	2,159	4,674	8,068	1,069	2,859	5,060
6.7	A086520	에코프로	188,729	34,130	-	-	2,138	-	-
5.5	A247540	에코프로비엠	212,292	25,316	30,424	42,010	1,433	1,121	2,107
3.3	A087010	팜트론	70,185	56	-	-	-213	-	-
3.0	A036930	주성엔지니어링	92,962	3,107	3,508	5,974	313	678	1,537
2.8	A028300	HLB	67,665	842	-	-	-1,042	-	-
2.5	A277810	레인보우로보틱스	136,187	341	600	1,320	-25	40	120
2.3	A058470	리노공업	74,230	3,725	4,487	5,452	1,770	2,169	2,667
2.2	A298380	에이비엘바이오	62,650	793	723	952	-404	-486	-412
2.2	A000250	삼천당제약	79,521	2,318	-	-	8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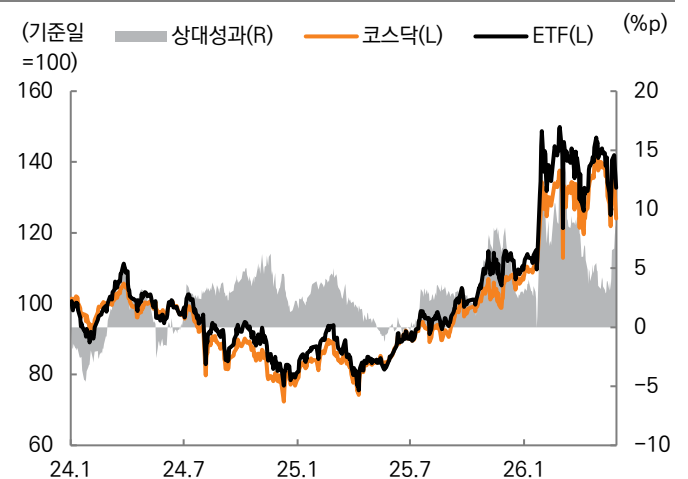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8. 산업별 비중(WI26, %, 2026.5.28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9. ETF 추가 및 코스닥 대비 상대 성과 추이(~2026.5.29)



주: 기준일 2024.1.1.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컨텐츠) TIGER 미디어컨텐츠(A228810)

[ETF 개요] 코스닥 미디어 ETF는 TIGER 미디어컨텐츠(A228810) 1개 종목이 순자산총액 940억 원 규모로 상장되어 있다. 코스닥 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플랫폼 관련 기업을 편입하고 있으며, 일부 소프트웨어 성격의 콘텐츠 기업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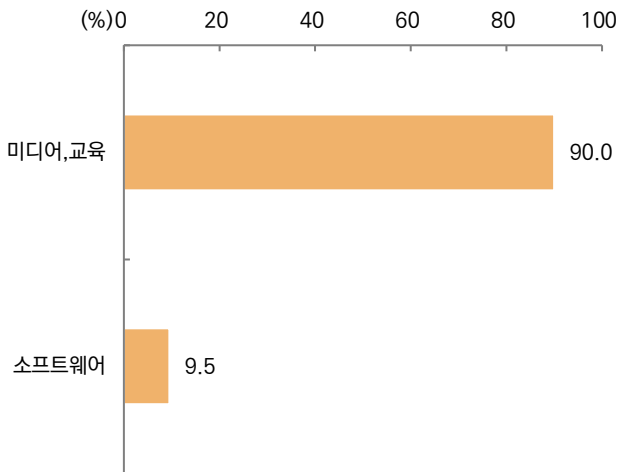
[편입 비중 상위 종목] JYP Ent.(11.2%), 에스엠(11.1%), 와이지엔터테인먼트(10.6%), 하이브(10.3%) 등이다. 산업 비중은 미디어/교육 90%, 소프트웨어 9.5%로 엔터/콘텐츠 업종 집중도가 높다.

표 9. 편입 비중 상위 종목(시가총액/매출액/영업이익: 억원, 비중/수익률: %, 2026.5.29 기준)

비중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025	2026F	2027F	2025	2026F	2027F
11.2	A035900	JYP Ent.	20,502	8,219	8,893	9,606	1,552	1,764	1,987
11.1	A041510	에스엠	18,247	11,749	12,862	13,856	1,830	2,012	2,239
10.6	A1228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336	5,454	6,011	5,660	522	806	764
10.3	A352820	하이브	94,825	26,499	43,506	40,210	493	2,905	5,082
9.5	A376300	디어유	5,852	838	995	1,136	314	438	548
9.2	A253450	스튜디오드래곤	7,950	5,307	6,314	7,037	304	504	638
8.7	A419530	SAMG엔터	2,422	1,413	1,634	1,761	226	325	386
8.6	A035760	CJ ENM	8,673	51,345	54,316	56,770	1,329	1,612	2,207
4.9	A473980	노머스	1,532	757	1,021	1,299	123	210	285
4.3	A403850	더핑크퐁컴퍼니	1,767	939	-	-	19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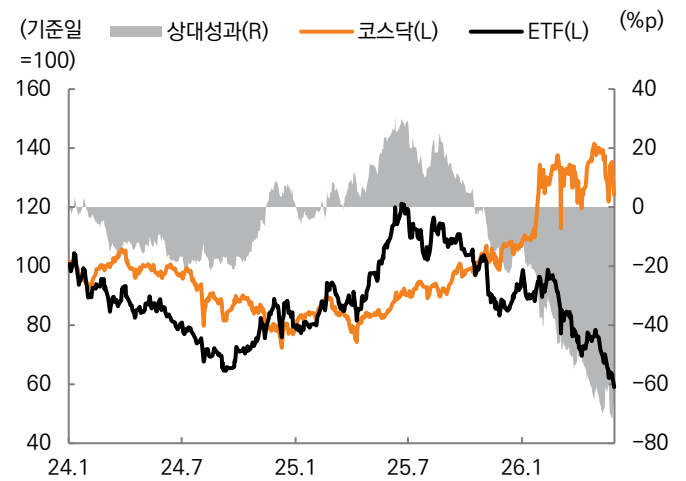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0. 산업별 비중(WI26, %, 2026.5.28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1. ETF 추가 및 코스닥 대비 상대 성과 추이(~2026.5.29)



주: 기준일 2024.1.1,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A471760)

[ETF 개요] AI반도체 핵심 공정 ETF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후공정(패키징 및 테스트)과 미세화 공정 관련 국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이다. 코스닥 종목 비중은 50%로, 반도체 장비, 소재, 공정 기업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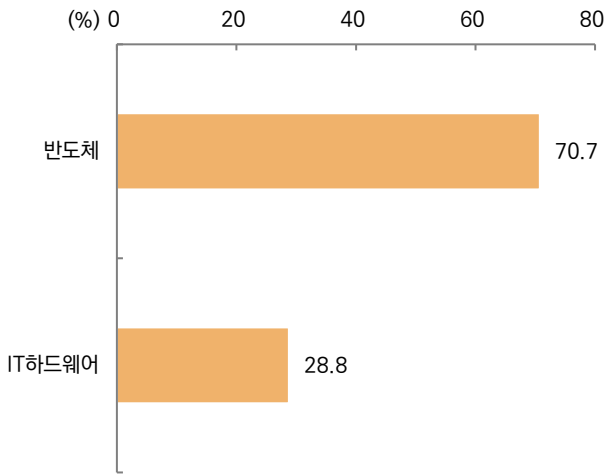
[편입 비중 상위 종목] 주성엔지니어링(25.4%), 원익IPS(15.1%), 한솔케미칼(10.4%), HPSP(9.9%) 등이다. 산업 비중은 반도체 70.7%, IT하드웨어 28.8%로 장비 업체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 편입 비중 상위 종목(시가총액/매출액/영업이익: 억원, 비중/수익률: %, 2026.5.29 기준)

비중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025	2026F	2027F	2025	2026F	2027F
25.4	A042700	주성엔지니어링	268,780	5,767	7,850	10,985	2,514	3,694	5,719
15.1	A240810	원익IPS	52,029	9,098	13,086	16,214	738	1,918	2,969
10.4	A014680	한솔케미칼	30,700	8,840	9,977	11,580	1,562	1,882	2,383
9.9	A403870	HPSP	40,039	1,730	2,373	3,078	899	1,266	1,692
7.9	A005290	동진썬미켐	27,881	11,941	-	-	1,724	-	-
7.1	A084370	유진테크	28,416	3,503	4,910	5,972	517	1,027	1,319
7.0	A357780	솔브레인	29,753	9,234	10,899	12,769	1,336	1,953	2,540
6.2	A064760	티씨케이	29,625	3,013	3,915	4,735	839	1,269	1,651
5.8	A095610	테스	23,058	3,511	4,492	5,532	578	963	1,268
4.9	A089970	브이엠	14,591	1,444	3,158	3,926	247	951	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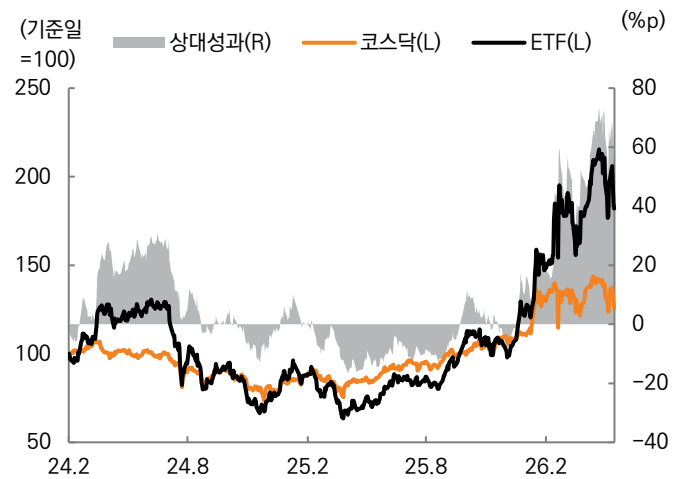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2. 산업별 비중(WI26, %, 2026.5.28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3. ETF 추가 및 코스닥 대비 상대 성과 추이(~2026.5.29)



주: 기준일 2024.2.14,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정보기술) TIGER 코스닥150IT(A261060)

[ETF 개요] 코스닥 IT ETF는 TIGER 코스닥150IT(A261060) 1개 종목으로 순자산총액은 396억 원 규모이다. 코스닥150 내 IT 업종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현재 산업별 편입 구조는 반도체와 IT하드웨어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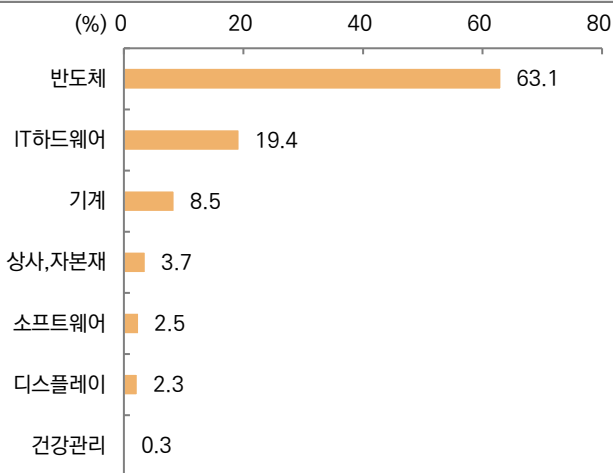
[편입 비중 상위 종목] 주성엔지니어링(8.4%), 리노공업(6.4%), 이오테크닉스(5.3%), 원익 IPS(4.7%) 등이다. 산업 비중은 반도체 63.1%, IT하드웨어 19.4%, 기계 8.5%로 코스닥 IT 노출의 핵심은 반도체 장비/부품주에 있다.

표 11. 편입 비중 상위 종목(시가총액/매출액/영업이익: 억원, 비중/수익률: %, 2026.5.29 기준)

비중	티커	기업명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025	2026F	2027F	2025	2026F	2027F
8.4	A036930	주성엔지니어링	92,962	3,107	3,508	5,974	313	678	1,537
6.4	A058470	리노공업	74,230	3,725	4,487	5,452	1,770	2,169	2,667
5.3	A039030	이오테크닉스	56,424	3,809	4,922	6,066	808	1,347	1,762
4.7	A240810	원익IPS	52,029	9,098	13,086	16,214	738	1,918	2,969
4.3	A080220	제주반도체	33,685	3,022	-	-	359	-	-
4.0	A108490	로보티즈	47,709	389	649	1,080	33	93	216
3.7	A222800	심텍	44,245	14,106	18,717	21,147	119	1,605	2,552
3.4	A178320	서진시스템	49,378	10,663	18,040	23,874	11	1,826	3,433
3.2	A032820	우리기술	26,101	871	-	-	-55	-	-
3.1	A403870	HPSP	40,039	1,730	2,373	3,078	899	1,266	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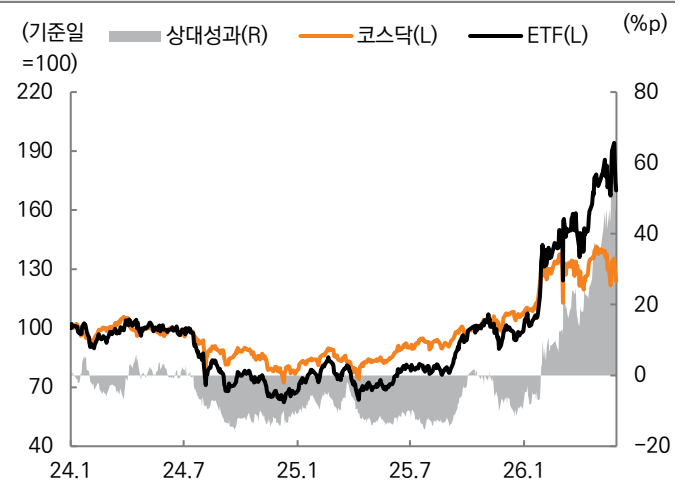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4. 산업별 비중(WI26, %, 2026.5.28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5. ETF 추가 및 코스닥 대비 상대 성과 추이(~2026.5.29)



주: 기준일 2024.1.1,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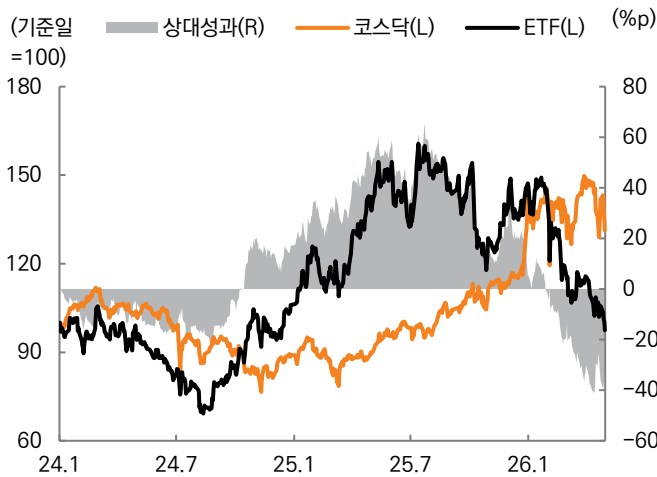
[Appendix] 핵심/관심 ETF 외 코스닥 ETF

테마 ETF: 로봏, K-POP, 수소 등

코스닥 테마형 ETF는 4개 종목, 순자산총액은 9,367억 원 규모이다.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ACE KPOP포커스,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액티브, UNICORN 포스트IPO액티브가 상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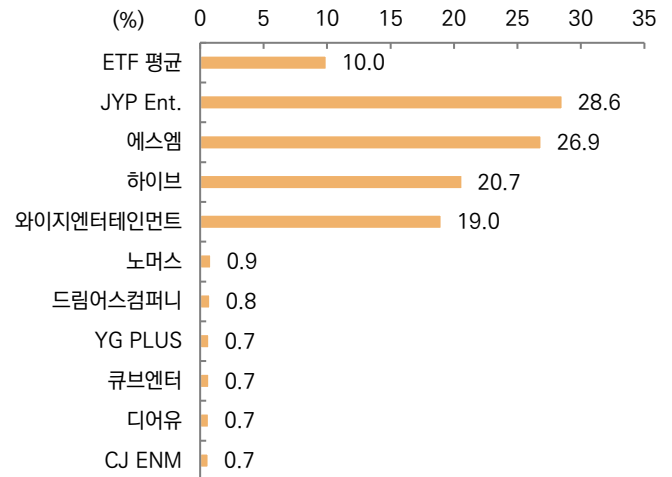
K-POP 테마 ETF 내 편입 상위 종목은 JYP Ent.(28.6%), 에스엠(26.9%), 하이브(20.7%) 등 상위 4개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수소 테마 ETF는 서진시스템(12%), LS ELECTRIC(7.9%), 비나텍(7.9%) 등이 비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6. K-POP ETF 추가 및 상대 성과 추이(~2026.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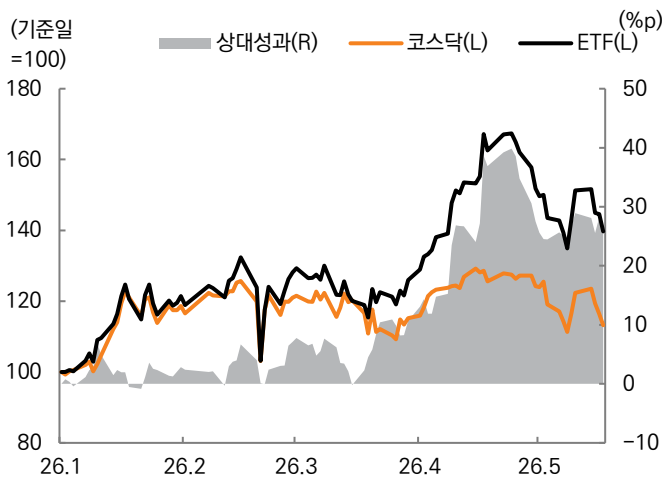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4.1.30.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7. K-POP ETF 편입 비중 상위 종목(2026.5.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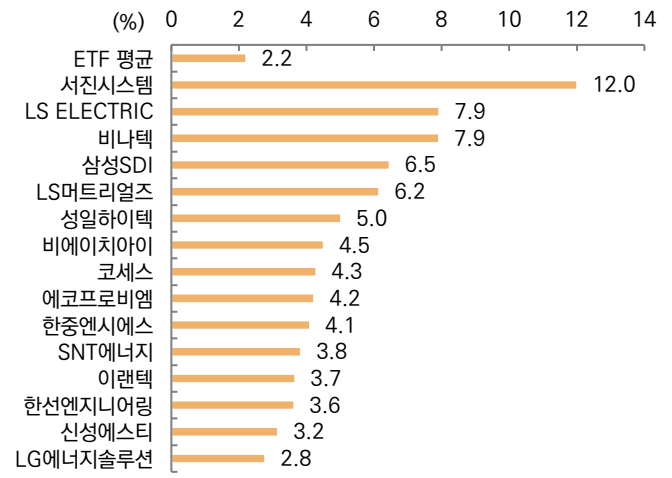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8. 수소 테마 ETF 추가 및 상대 성과 추이(~2026.5.29)



주: 기준일 2026.1.6.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9. 수소 테마 ETF 편입 비중 상위 종목(2026.5.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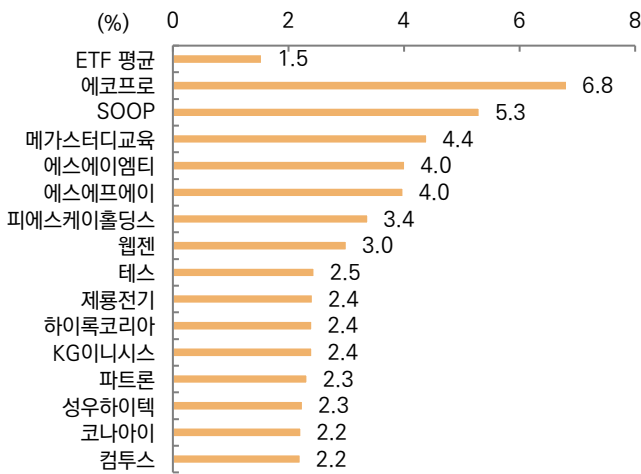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섹터/산업 ETF: 배당

코스닥 배당 ETF는 RISE KQ고배당(A270800) 1개 종목, 순자산총액은 100억 원 규모로 상장되어 있다. 코스닥 고배당 기업을 편입하는 스타일 ETF이며, 특정 성장 섹터보다 소프트웨어, 기계, IT하드웨어, 반도체 등으로 업종이 분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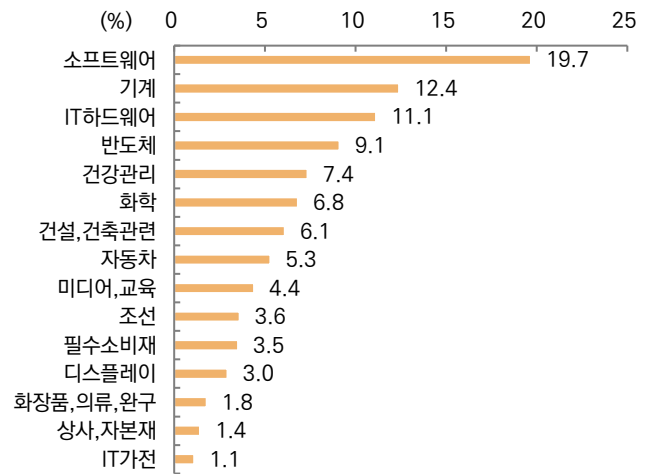
RISE KQ고배당(A270800)의 편입 비중 상위 종목은 에코프로(6.8%), SOOP(5.3%), 메가스터디교육(4.4%), 에스에이엠티(4.0%), 에스에프에이(4.0%) 등이다. 산업 비중은 소프트웨어 19.7%, 기계 12.4%, IT하드웨어 11.1%, 반도체 9.1%로 배당형임에도 코스닥 특성상 성장 업종 노출도가 높다.

그림 50. 편입 상위 TOP 15 종목 및 편입 비중(2026.5.2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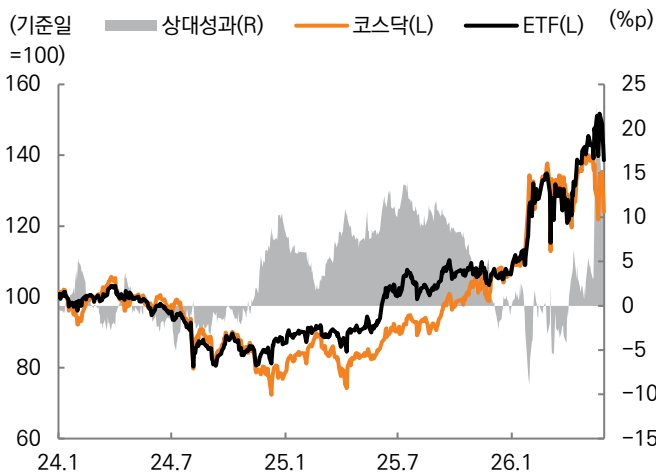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1. 산업별 비중(WI26, %, 2026.5.28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2. ETF 추가 및 코스닥 대비 상대 성과 추이(~2026.5.29)



주: 기준일 2024.1.1,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3. 순자산총액, 거래대금(코스닥 배당 ETF)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